

현대 중국 지식인의 위상*

이 성 규

등소평 정권이후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기치아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며 이른바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 새로운 변화에 상응하는 '정신문명'의 건설을 지식분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천하의 안위를 스스로 책임지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강하였고 체제 이념과 가치의 창조·수호자를 자임하였으며, 실제 그들은 독서인·관료 사대부로서 정치와 학문을 주도한 지배층의 위상을 접해 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 지식인들의 사회적 위상은 대단히 낮으며, 경제적으로도 가장 수입이 적은 부류에 속한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신문명' 건설이란 역할에 대해서도 극히 회의적이며, 지식인의 역할과 존재의미를 새삼 심각히 반추하는 논의중에는 절망과 당혹, 그리고 깊은 나락에 빠진 듯한 '실락감(失落感)'을 고백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것은 물론 50년대 이후 공산당 정권의 지식인 정책, 특히 이른바 '문화대혁명'기의 지식인 말살정책, 그리고 갑자기 문화계까지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되면서도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견지 때문에 자유로운 모색이 기본적으로 제약된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50년대 이후 지식인의 운명은 5·4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철저한 반전통주의와 급진적인 행동주의, 학문의 기초가 없는 과도한 정치열정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이 직면한 내외의 위기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경도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의 황폐화와 함께 학문의 기초가 박약한 지식인을 양산하였으며, 지식인들은 '구망(救亡)'을 위하여 '최악고 무식한' 자신을 '개조'하고 '혁명왕국의 신민'으로서 당과 '순수 무구한 인민'을 섬기는 위상에 스스로 동의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지식인이 도덕과 가치의 최고 재단자로서 역사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사명의식과 아울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강박관념의 지양을 촉구하는 최근의 반성적 주장은 바로 이 점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식인들의 급선무는 주변화되고 삼류수준으로 전락한 인문학을 정당한 위상에서 일류 수준으로 창조하는 일일 것이다.

I. '지식분자'의 곤혹과 '실락감(失落感)'

70년대말 이래 '개혁과 개방'의 기치 아래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거대한 정치·사회·문화의 급변 속에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이 결국 중국공산당 스스로 "또 하나의 위대한 혁명"으로 규정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중국적 특색의 자본주의 건설'로 이해할 여

*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작성되었음.

지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현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반에 걸친 철저한 변혁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와 ‘공산당 영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한, 새로운 변화를 또 다시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문화체제의 개혁 원칙 역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고 ‘복무’하는 성격으로 설정한 것(유덕충, 1993) 또한 당연하였다. 즉 중국의 집권 세력은 ‘정신문명’ 건설의 기초를 애국주의, 집체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인민군중이 개혁과 현대화 건설에 종사하는 창업정신’으로 설정하고, 그 목적을 ‘물질문명’의 건설을 위하여 정신동력·지적지식·사상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시에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弘扬’하여 시장경제 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배금주의, 향락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오표훈·진의원, 1994).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전통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주의 무산계급의 독재’라는 명분으로 합리화되었던 공산당 일당독재와 무관하지 않고, 또 이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것이라면, 과연 이러한 ‘정신문명’의 건설이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¹⁾ 어쨌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의 ‘물질문명’ 건설은 근래 누누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과기(科技)인재’의²⁾ 역할이라면, ‘정신문명’ 건설은 그 동안 특히 경시 또는 원수로 보기조차 하였던 非과기 ‘지식분자’의 몫일 것이다. 물론 당과 국가의 새로운 소명에 감응한 ‘성실한 역군’도 있을 것이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려는 ‘지식분자’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³⁾

‘개혁과 개방’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이 대다수 ‘인민’에게 미증유의富足을 향수케 하였고, 도덕심리와 행위의 특징이 “가(假)에서 진(眞)으로, 허(虛)에서 실(實)로, 봉폐(封閉)에서 개방으로, 단일에서 다원으로, 의뢰순중형에서 독립자주형”으로 전변한

- 1) 시장경제에 상응한 신가치체제와 가치관념의 건립은 우선 지식분자와 문화공작자의 노력과 창조에 의뢰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것은 실제 심각하고 건강한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관계와 사회제도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인만큼 ‘完善·健全한 市場’과 ‘民主·強大·公正·廉潔한 政府’가 새로운 사회관계와 가치체제를 보충할 수 있다는 張于 1994는 이 모순을 잘 지적한 것 같다.
- 2) 그러나 모택동 역시 科技工作을 중시하였다는 朱光亞 1993, 지식(주로 과기 지식을 의미) 역시 가치창조에 공헌한다는 것을 세삼 논증하면서 지식분자는 단순한 工人階級の 일부가 아니라 공인계급 중 ‘특수’, ‘선진’ 분자임을 주장한 馬慶泉 1993 등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아직 科技人才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 같다.
- 3) 揚人 1992는 현재 중국 지식인의 집단적 동향을 青年體改委派員, 中國文化書院派, 北京社會科學經濟所派, 文化叢書派, 啓蒙派 5류로 분류하며, 전 3파를 대체로 정치권력에 ‘복무’ 내지 ‘영합’하는 성격으로 소개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덕순, 1994). 그러나 ‘부분선부(先富)’ 정책으로 인한 지역과 개인 간의 소득차의 확대(장도근, 1994; 대화전통해, 1989) 법제의 미비를 이용한 ‘권(權)·전(錢)·정(情)’의 남용에 따른 정치·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만연,⁴⁾ 대중 소비문화의 발전에 따른 문화의 용수·저질화와 고급 학술문화의 전반적인 위축, ‘지식분자’의 상대적 빈곤에 따른 교육의 침체와 고급 학술문화의 전반적인 침체, 국제 개방에 따른 맹목적인 숭양(崇洋) 풍조 등의(나영거, 1994) 부정적인 측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과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뜻있는’ 지식분자라면 이 ‘위기’를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당과 정부가 규정한 ‘지식분자’의 개념이야⁵⁾ 어쨌든, 전통시대 사대부의 이상, 즉 “도의 유효(維護)와 실천에 뜻을 두며(志于道)”, “천하의 안위를 자기의 소임으로 여기고(以天下爲己任)”, “천하의 근심은 제일 먼저 근심하되 천하가 다 즐긴 연후에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범중암(范仲淹), “악양루기(岳陽樓記)”)”는 자세, 그리고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생민을 위하여 명을 세우며, 지난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을 계승하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연다.(爲天地而立心, 爲生民而立命, 爲往聖而繼絕學, 爲萬世而開太平: 주희(朱熹), 『근사록(近思錄)』 권 2)”는 명구를 어려서부터 귀담도록 들어 온 지식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유위(有爲)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⁶⁾

근래 대거 양산되고 있는 중국 전통시대 지식분자의 성격과 역사적 역할, 특히 근현대 지식분자의 역할과 운명에 대한 ‘반사(反思)’적인 논저들,⁷⁾ 마치 2-30년대의 학술계를 방불케 하는 80년대의 ‘중국문화열’과 ‘중서비교풍’⁸⁾ 뒤이은 90년대의 ‘국학

4) 文正邦 1994는 이미 사회와 민심을 마취시킬 정도로 심각한 이 부패현상을 ‘분혁’의 유풍과 ‘箇海’의濁浪이 결합되어 조성한 최대의 ‘汚亂’으로 지적하고 있다.

5)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지식분자’ 개념은 ‘중등 專業학교 졸업 이상의 科學文化 정도의 소유자로서, 정신 노동에 종사하여 획득한 보수를 생활의 주요한 경제 내원으로 삼는 자’이며, 구체적으로 工程技術人員·농업기술인원·자연과학연구원·위생기술인원·教學人員·文藝人員 및 기타 신문·출판·번역 인원과 工交·基建·財務·문교·농림 등 사업 ‘單位’의 관리 인원을 지칭하는 것 같다.(趙德昌, 1989: 59~60, 113 참조)

6) 余英時 1987a의 自序는 ‘자신의 전문 직업에 헌신함과 동시에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사회 내지는 세계의 모든 공공 이해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회의 양심’으로서, 인류의 기본적인 가치의 수호와 실현을 위하여 현실의 모든 불합리를 비판하는’ 현대 서양 지식분자(Intellectual)가 전통시대 중국 사대부 이상형과 酷似함을 잘 지적하고 있다.

7) 90년을 전후하여 출간되기 시작한 잡지 『二十一世紀』(홍콩), 『當代』(대만), 『東方』(북경) 등도 대호 이런 류의 문장을 다수 실고 있지만, 余英時 1987a; 湯學智·楊匡漢 編 1994; 劉再復·林崗 1988; 林毓生 等 1989; 許紀霖 1992a; 林道群·吳讀梅 編 1993a, 1993b, 1993c;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논전사분과 1992 등도 모두 참고할 만하다.

열'에 수반한 원전·자료·사전류의 대량 간행과(진래, 1995)⁹⁾ 5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민간' 학술지 간행의 성행¹⁰⁾도 모두 '위기'의 현실에 처한 지식분자의 모색으로 이해되며, 실제 '위기'의 처방을 '용감히' 제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즉 문화의 위기시대에 더욱 주관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그 위기를 신속히 종결시켰다는 중국 지식분자의 역사 전통에 근거한 낙관론(왕부인, 1994),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발양하고, 외래의 진보문화를 차감(借鑑)·흡수하여 중국문화의 창신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상투적인 논조의 문장이나 좌담,¹¹⁾ 전통문화에 걸여된 지성주체정신의 배양으로 중국 문화를 현대화하자는 주장(소허민, 1994)¹²⁾ 현재 도덕 타락의 원인인 '계획경제체제'에 상응하여 강조되었던 도덕, 즉 군체(群體)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 이익의 절대적 희생을 요구하는 도덕을 타파하자는 주장(소도생, 1994),¹³⁾ 인문정신의 회복으로 시장경제

8) 이 문제는 甘陽 1989; 김교빈 1992; 박우봉 저, 유동환 역 1992; 왕준의·방덕린 저, 유동환 역 1992 등을 참고하라.

9) 북경대 中文系 교수 袁行霈는 '국학열'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4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1)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중국 전통에 대한 이해 갈망, (2) 동서문화가 부딪치며 융합하는 현실에서 우수한 민족문화를 보존·발양하려는 희망, (3) 부패작풍과 불량풍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전통문화 중 특히 우량 도덕에 대한 懷念, (4) 文人 '下海經商'의 풍조 속에서 '安貧樂道'하는 문인을 격려하려는 심정.(陶大鏞 司會 1994 참조)

10) 王德勝 1994에 의하면 이들 잡지의 경비조달은 (1) 편집자들이 임시변통식으로 그때 그때 경비를 모금·조달하는 형(『美學與文藝研究』·『文學研究』), (2) 외국 단체·기금·개인의 찬조로 유지하는 外資型(『現代與傳統』·『中華人文』·『學人』·『東方叢刊』·『東西文化評論』·『中國社會科學季刊』 등), (3)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찬조하는 中資型(『今日先鋒』·『文化與藝術論壇』 등) 등으로 구분되며, 『學人』·『中國文化』·『中國社會科學季刊』·『中華人文』·『美學與藝術學研究』 등이 순수 전문학술지로서 同人誌의 성격을 띤 것에 비해, 『東方』·『戰略與管理』·『現代與傳統』 등은 광범위한 현실 사회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탐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또 『中國文化』·『現代與傳統』·『文化與藝術』·『文學研究』 등은 認可문제등 종종 곤란 때문에 국가 출판사가 출판하는 '叢刊'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이미 국가 출판체제의 구속을 벗어났다고 한다.

11) 예컨대 丁守和 1994; 陶大鏞 司會 1994.

12) 이 글은 정통유가로 대표되는 중국 전통사회의 주류문화와 지성주체정신의 기초가 되는 과학·민주 및 신도덕은 불상용의 관계이고, 따라서 이것을 정통유가 문화의 幹枝에 접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5·4 이래 반전통주의의 입장을 재천명한 셈이다. 1989년 민주화운동이 좌절된 직후, 중화민족의 전통과 민족정신을 부정함으로써 '天下暴亂'을 선동한 反 마르크스주의 자산계급 자유화의 대표작이요 매관계급사상의 산물이었다는 『河殤』에 대해 전개된 대대적인 관주도의 비판운동(中國文物報 1990 참조) 이후 이런 논조는 대륙에서 찾기 힘든 것 같다.

13) 邵道生 1994. 이것은 사실상 당과 정부가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기초로 설정한 사회주의와

중의 대중이익과 사회정의를 보증하고(오부항·적기충, 1994) 사회의 타락을 ‘노호질타(怒號疾打)’하자는 지식분자의 사회적 책임과 교화론(장승지, 1994; 잔보곤, 1994)¹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론자들과는 달리 상당수의 지식분자들의 입장이 극히 소극적이며, 자신들의 ‘역할’ 자체에 커다란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도덕 중건’의 임무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수세대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도생(邵道生, 1994)의 입장, ‘시인의 분노’를 촉구한 장승지(張承志)의 발언에 놀라움과 불안을 표시하며 ‘자신의 기준을 국가·민족·군체 이익을 대표하는 공공가치로 확대함으로써 도덕 중재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신하여 타인을 도덕의 범정에 끌어내어 사형(私刑)하고 고문하면서 도를 보위하는 정의감을 획득하려는’ 위험성을 경고한 허기립(許紀霖, 1994b)의 발언, 지나친 인문정신의 절대화와 기형적인 추승은 도리어 현실 생활과 유리되어 자기도 남도 속이는 위선적인 교조적 행동과 권력의 남용에 빠진다는 왕몽(王蒙, 1994)의 경고¹⁵⁾는 그래도 지식분자의 지나친 자신감과 과격성에 대한 충고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아직도 자신을 ‘구세주’로 자부하는 지식분자에게 진정 사회를 개변할 수 있는 것은 경제의 힘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이택후(李澤厚)의 촉구,¹⁶⁾ 문학이 세상을 오도하거나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며 문인은 이상의 실락(失落)이나 도덕수준의 하강을 책임질 능력이 본래 없다는 장화(張驥, 1994)의 주장, 도덕과 가치의 중건 및 시대에 맞는 인격전범의 창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지

집체주의를 부정한 대담한 발언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논자들이 현실 도덕의 타락을 ‘시장경제체제’와 관련짓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약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 관점은 ‘道德의 “滑坡”는 장기간 계급투쟁을 확대한 惡果’라는 謝冕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謝冕 1994)

- 14) 張承志 1994; 張寶坤 1994. 張寶坤은 과거 수차의 정치비판운동이 문학을 지나치게 간단화하여 정치를 도식적으로 해설하였고, 작품의 질 역시 낮았기 때문에 문학의 교화작용에 반감을 품는 독자가 많아졌지만, 문학의 교화 기능 자체는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 15) 특히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大公無私한 ‘君子國’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우두머리’, ‘영웅’, ‘新人’, ‘역사의 주인’ ‘三山五嶺을 호령하여 길을 열며, 내가 왔다고 외치는 사람’, ‘몸은 초옥에 있어도 가슴에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 등등의 수많은 호언장담이 따라 다니는 것은 결코 인문주의의 천당이 아니다.” 등의 귀절은 왕이 강조한 진정한 인문정신의 의미를 잘 말해 준다.
- 16) 李澤厚·王德勝 1994. 李는 지식분자의 ‘救世主’ 의식은 ‘精英’ 의식과 전통적인 ‘萬般皆下品 唯有讀書高’라는 전통 관념에 사로잡혀 진정한 사회의 평등한 일원이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식분자 계층이 홀로 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늘날 지식분자에게 전통시대 사대부의 역할을(그것도 이상화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정녕(鄭寧, 1994)의 주장 등은 모두 현대 사회에 적합한 지식분자의 위상을 제시한 것인지는 몰라도 전통적인 중국 지식분자의 당당한 위상을 크게 왜소화시킨 것이 분명하다. 현재 많은 지식분자들이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보지하고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여 정신상의 독립과 지적 자아의 확충을 역설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식분자의 축소된 역할에 순응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이 위상에 만족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자구(自救)’의 성실한 몰입이 결과적으로 ‘구세’에 공헌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주국평, 1994) 현대 중국의 지식분자들의 정신적 방향이나 곤혹은 해소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양(甘陽)편 『당대(當代)중국문화의식』(1989)의 상·하편의 제목 ‘반변(叛變)’과 ‘곤혹’, 하박전(何博傳) 『산요상적(山坳上的)중국 - 문제·곤경·통고(痛苦)적 선택 -』의 서명과 부제, 20세기 중국 지식분자의 과오를 전반적으로 반성하면서 현재의 당황과 곤혹을 솔직히 시인한 전리군(錢理群, 1995)의 고뇌,¹⁷⁾ 작가로서 도덕건설의 책임감을 절감하면서도 부도덕한 현실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통감한 라균균(羅筠筠, 1994)의 무력감 등도 모두 현금 중국의 많은 지식분자들이 아직도 곤혹과 실락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서를 잘 전해 주지만, 특히 양효성(梁曉聲, 1994)의 다음과 같은 독백은 그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즉

우리들은 바로 이런 시대의 입구에 처해 있다. 그것은 마치 일체의 법칙을 모두 금전 자체의 법칙으로 귀결시키려는 것 같다. …… 나는 44세의 삶을 부지하면서 이미 1993년과¹⁸⁾ 같은 두 시대를 겪었다. 그것은 나에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 즉 사람을 미치게 하였다. 그렇다, 이것은 광기였다. 거의 무이성적이고 부정부 상태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광기였다. 그 두 시대는 바로 ‘대약진’과 ‘문혁’이었다. 전자는 허망한 신화 ‘간초원망(赶超願望)’ 방면에서 체현된 것이었으며, ……

17) 錢教授는 현대 중국의 비극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분석, 반성하고 있다. 즉 (1) 至高至善의 大同世界 실현에 대한 맹신, (2) 지고지선의 人性을 추구한 인간개조, (3) 사상의 절대진리 추구, 마르크스주의의 절대화·종교화, (4) ‘인민 숭배’와 지식인 천시, (5) ‘투쟁’을 절대신성화한 투쟁철학.

18) 1993년은 문화예술 분야의 본격적인 시장경제 편입이 확정된 해인데, 劉洪濤도 그 충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수년후 중국의 문화계 인사가 1993년을 회고할 때, 아마도 이 일년이 사람들이 잊기 어려운 평범치 않은 해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해는 각 부문의 문화예술이 시장경제라는 大潮의 無情한 충격 속에서 紛紛히 생존공간을 찾으며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연도였으며, 중국 예술가들이 돌연 適者生存의 잔혹성을 인식하게 된 해였고, 사람들을 迷惘케 하고 思考케 한 연도였다.”(劉洪濤, 1994)

후자의 광기는 정치종교 방면에서 체현된 것이었다. …… 그러나 1993년의 광기는 과분욕(瓜分慾) 점유욕 방면에서 체현되었다. 이것은 과분(瓜分)자와 점유자의 황음한 사치와 도취 방면에서 체현되었으며, 금전을 통과하여 사회, 시대, 보통 일반 백성의 의식을 강간한 방면에서 체현되었다. ……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시대가 만약 어지럽게 모순을 드러내어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문학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감을 담당해야 한다. ……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우환지사로 만들기에 족하다. 만약 그가 불행히도 동시에 소설가 혹은 시인이었다면(지금도 시인도 이미 시대에 소멸되어 남은 자도 거의 없지만), 그의 소설이나 시가 책임감 사명감 어쩌구 하는 것으로 넘쳐 흘러, 문학이 책임감 사명감 어쩌구 하는 것으로 회귀할 것을 대성절호한다면, 그는 편집광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문학가의 과장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극단적인 현실 위기감 속에서 자신의 ‘당위’적 역할이 통용되지 않는 좌절감, 곤혹, 무기력감의 정서는 그만의 특유한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이것이 결국 사회적 책임의식을 방기할 수 없는 지식분자의 본질적인 속성에서¹⁹⁾ 비롯된 것이라면, 저명한 작가 백화(白樺, 1994)의 다음과 같은 비장한 다짐도 ‘구세’를 포기한 ‘자구’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비애와 무력감을 동시에 토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물욕의 대조(大潮)’에 직면한 ‘곤혹의 시대’에서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작가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이념과 열애하는 ‘청고(淸苦)노동’을 잃지 않을 것을 역설한 것이다.²⁰⁾ 사실 ‘천하 안위를 자기 소임으로 삼는’ 전통적 관료 사대부상, 그리고 현대사에서도 장기간 계몽과 구망, 개혁과 혁명의 주역을 자임한 현대 지식분자의 전통에 익숙한 그들에게 ‘구세’의 열정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누군들 학문을 위한 학문에 몰두하는 ‘학자의 초월’과 인류와 민족의 장래에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버리지 않는 ‘사상가의 개입’을 일신에 겸한 지식분자의 이상을(허기림, 1993 : 140-141) 꿈꾸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환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나친 ‘구세’의 열정과 현실 참여가 초래한 미증유의 재난에 대한 자각적 반성을²¹⁾ 거친 ‘자구’의 몰입은 전원에 은거하여 ‘도’를 지키며 교

19) 전술한 바와 같이 ‘시인의 분노’를 신랄히 반박한 許紀霖이 학문을 위한 학문을 중시하면서도 현대 이상형 지식인의 3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즉 (1) 의식면에서 自我需要를 본위로 삼아 진리를 위한 진리를 추구하며, (2) 사유방식에서 과학과 이성을 견지하며, (3) 행동양식면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풍부할 것.(許紀霖 1992c, 1992d 참조)

20) “우리들은 바로 困惑의 시대를 지나치고 있다. 困惑의 시대는 (인간을) 피동적으로 (만들고), 懷疑의 시대는 (인간이) 주동적이다. 우리들은 곤혹의 시대에 주동성을 保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동적인 (위치를 견지해야 한다.)”는 귀절은 白樺의 곤혹과 비장감을 잘 말해 준다.

육과 학문에 몰입한 전통시대 은사(隱士)의 위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그들은 이처럼 곤혹과 실락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은사의 자족과 자부심도 많은 경우 정치적 실의를 자위, 합리화한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은사는 적어도 은거할 전원도, 도덕과 학문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 명성,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언젠가 정치의 중심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²¹⁾ 그러므로 그들의 자족은 유재복(劉再復) 등이 혹평한 것처럼, 자신이 추구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 목표의 몰가치를 극력 변명하고, 그 목표의 몰가치성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가 더 고상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아(阿)Q의 음영(陰影)”은 (유재복·임강, 1998 : 162-163)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현대 중국 지식분자의 곤혹과 방향은 그들이 ‘자구’ 몰입을 “阿Q의 음영”으로 자학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은사의 자족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적 조건 때문인가? 또는 실제 ‘자구’에도 몰입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의 결여를 자각한 때문인가? 이하 장을 바꾸어 이 문제들을 검토해 보자.

II. 지식의 분화와 인문학의 주변화

전통시대 사대부의 당당한 위상은 실제야 어쨌든 다음과 같은 3가지 전제에 근거한 것이었다. (1) 정치는 성인의 도를 구현하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2)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조직된 ‘성인의 학’은 최고·최대의 학문체계일 뿐 아니라 지고지선의 가치규범을 제공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3) ‘성인의 학’을 전수받은 사대부는 최고 지식분자인 동시에 최고의 도덕적 인격을 구비한 존재이다. 이 3가지 전제가 회의되지 않은 한 왕도정치의 주체인 천자가 사대부들과만 천하를 ‘공치(共治)’한 것도, 사대부가 독서와 사환 이외의 일체 사회적 활동과 기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도, ‘성인의 학’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지식은 이단으로 탄압되거나 공식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또 ‘성인의 학’이 ‘수기(修己)’와 ‘치인’의 도덕적 전범을 제공하는 문사철 즉 인문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모두 당연하였다.

21) 劉再復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에 대한 깊고 철저한 반성을 간결하게 요약한 好例라 하겠다. 즉 “중국 현대 지식분자는 장기간 시대의 중심 위치에 처하여 風雲多變한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幸事’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不幸’이었다. …… 불행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왕왕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 결과적으로 빈번히 역사 무대 위에서 自我의 迷失과 다른 나라들의 지식분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정신부담을 받았던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시대와 사회에 대한 지식분자의 지나친 직접 관계가 자기 뿐 아니라 자기가 처한 시대--20세기에 종종 재난을 가져왔던 것이다.”(劉再復, 1993: 155)

22) 劉澤華 1992의 제5장 “秦漢隱士” 참조.

물론 명·청시대 경세치용의 학에 대한 요구에 따라 수학(水學)·화학(火學)·공학·상수(象數)·천문·지리·재정·형율(刑律)에 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고(이성규, 1994 : 19-21) 상인 계층의 성장에 따라 실제 많은 사대부가 상인의 집안에서 나오기도 하였으며 상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유업(儒業)을 버리고 상인이 된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여영시, 1987b : 519-533). 그러나 경세치용의 학에 포함된 지식은 사대부관료의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정도의 부차적인 의미에 불과하였고, 사대부와 상인의 밀접한 관계도 사대부의 기능 분화와는 무관하였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뒷바침하는 황제지배 체제가 존속하는 한 중국의 인문학이 정통학문의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모든 지식분자와 정치인이 인문학자 내지는 그 학도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도동풍, 1994 : 18-19). 이것은 곧 인문학도가 문화는 물론 정치·사회의 주역이어야 한다는 전통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문학의 절대적인 위상은 19세기 말 구망을 위한 서학(西學)의 불가피한 수용과 함께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서학 수용의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학문의 구조와 체계 및 그 위상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즉 (1) 학문의 신구가 서학·중학의 구분과 중첩되면서 지금까지 독존적 위치를 누려온 '성인의 학'은 적어도 2원 체계의 일부로 전락하였으며, 신식 교육제도의 발전과 함께 공식 교육의 내용에서 점차 서학의 비중이 높아졌고, 독경과(讀經科)의 설치는 오히려 반동적인 정책으로 인식되었다(이성규, 1994 : 28-30). 더욱이 1905년 과거제의 폐지는 '성인의 학'과 정치의 직선적인 관계를 일단 단절하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정치 엘리트는 이제 최소한 서학의 검수가 불가피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신식·서학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지식분자 집단이 형성되었다(유재복, 1993 : 161-163). (2) 서학은 문사철이 미분된 중학과는 달리 이미 상당히 분화된 체계를 갖고 있었던 만큼, 그 본격적인 수용은 지식체계와 지식분자의 기능적 분화를 의미하였으며, 대단히 막연한 구분이지만 적어도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과학이 학문체계의 당당한 성원이 된 것은 당연하였다. 서학의 수용이 구망을 위한 것이었고, 또 과학과 기술이 서학의 큰 장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면, 지적 정영분자(精英分子, elite)가 대거 이 분야에 참여하고, 그 결과 인문학 위상의 상대화도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정영분자는 별로 많지 않았다. 물론 처음에는 실업구국·교육구국·과학구국·문화구국 등 구국 기능의 분담에 따라 병기제조, 과학기술, 상업경제, 법률, 행정 등의 학습에 뜻을 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국시대 저명한 계몽 또는 혁명에 적극 참여한 문학가, 철학자, 사학자들, 예컨대 곽말약(郭沫若)·노신(魯迅)·육달부(郁達夫)·성방오(成仿吾)·이달(李達)·

정문강(丁文江)·하연(夏衍) 등이 모두 본래 의학·자연과학·경제관리 등의 전공자였다는 사실은 당시 정영분자의 관심이 역시 인문학에 집중되었음을 잘 말해 주는 것 같다. 유재복은(1993 : 164-165) 이들의 전환을 혁명의 시대에 혁명의 무기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는데, 개혁과 혁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것이 경제발전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가치관과 사상 및 그 선전이었다면 이 수요에 빙자하여 인문학이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도동풍, 1994 : 19-20). 그러나 이 문제는 역시 비효통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천시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비효통에(1988 : 417-419) 의하면 외국에서 전공한 자연과학 지식과 기술은 전통적인 ‘치인’의 사회적 지위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의환향 후 전업을 서둘렀다는 것이다.²³⁾

어쨌든 서학의 수용이 비록 중학의 위상을 크게 위축시켰고 5·4 신문화운동의 반 전통 열풍을 거치며 그 입지가 더욱 좁아졌지만,²⁴⁾ 인문학 자체의 중심적 위치가 유지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인문학의 질적 수준과 지식분자의 심리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중학은 적어도 세계 최고의 학이었고 사대부도 일류·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정치문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반동으로 경멸되었던 국수(國粹)학파나 학형파(學衡派)와 같이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전통문화의 보존 연구에 몰두한 몇몇 학자들을 제외하면, 중학의 전문가로 자부할 수 있는 지식분자도 거의 없었지만,²⁵⁾ 그들이 자부한 신학문의 수준 역시 대부분 보잘 것 없었다. 우선 그 지식이 중국의 현실과 맞지도 않았지만 길어야 5-6년 외국에서 속성으로 습득한 피상적인 지식을(전목, 1994 : 29) 귀국후 계속 연마하지도 않았다면 그 수준이 서양 학계의 3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전반서화(全般西化)’를 주장한 호적(胡適)조차 실제 서학의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면, 전통의 파괴와 서학의 적극 수용이 격렬하게 주장되면 서도 막상 서학을 깊이 이해한 지식분자는 거의 없었다는 실로 기이한 현상이 발생

23) 병기제조와 기술의 수용에 치중한 양무운동에 비해 서양의 학술과 政制의 수용까지 주장한 변법운동이 보다 많은 사대부의 호응을 받은 사실도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천시와 사대부 지식의 인문학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24) 余英時は 여기서 곧 중국문화 자체의 주변화와 지식분자의 주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지식분자의 주변화는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余英時, 1991 : 24)

25) 근래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즉 孫尙揚 1994 : 曠新年 1994 ; 劉夢溪 1992b 등은 모두 계몽파의 비이성적인 파괴성과 조급한 행동주의에 대비된 학형파의 이성적인 학술연구 태도와 함께 학형파가 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초로 중국문화와 세계문화의 교합점을 모색한 점을 적극 평가하고 있다.

것이다.

이 또한 중국의 지식분자가 한가롭게 학문에 몰두할 수 없는 급박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상 수준 미달의 지식분자들이 문화 체계의 중심에 위치한 인문학을 빙자하여 정영분자 행세를 한 셈인데, 바로 이 괴리가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지식분자의 급진적 도덕주의를 자극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겠지만, 이 급진성이 필요한 정치 세력들 간에 각축이 계속되는 한 인문학의 형식적 권위는 존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판은 필요없고 지지는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인문학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950년 이후 경제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배양하기 위하여 과기분야의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된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9년 33.1%에 달하였던 대학생 중 문과생의 비중이 1953년에는 14.9%, 1957년에는 다시 9%로, 1962년에는 다시 6.8%로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사회학·심리학·정치학은 그 과목조차 말소되었고, ‘문학’ 종료 이후 1980년 재조정시 상향조정된 비중도 8.9%에 불과한 것은 ‘문과무용’·‘문과위험’이라는 사회주의 무산계급 독재정권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양동평, 1994c:37-39). 인구 2,000만의 대만에 5개의 철학과가 있고 그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보인(輔仁) 대학 철학과의 신입생 정원이 200명인데 비해 대만 인구의 2배가 넘는 광둥성에는 신입생 정원 30명의 중산(中山) 철학과 1개 뿐인데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실은(진소명, 1995:29) 바로 그 단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감소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50년대 이후 계속된 각종 ‘운동’과 ‘문학’을 거치면서 비교적 우수한 학자들이 대거 회생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교육과 연구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현재 인문학의 수준이 해방 전에 비해 더욱 저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른바 해방 전의 ‘노대가’를 능가하는 중장년의 학자가 없다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현금 ‘사학(史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도 ‘연구관점’이 사학계 이외에서 지도되는 ‘자주성 결핍’에 있다는 일부의 분석은(장지런, 1995:97) 바로 현재 중국 인문학의 주소를 잘 말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전통과 현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서양철학의 소개에 앞장섰던 문화홍서파의 주역 감양·유소풍(劉小楓) 등도 기초훈련이 결여되어 서양철학의 기초조차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속성 번역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수많은 책들도 번역상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양인, 1992)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상업성 저질 대중 문학의 범람과 이른바 ‘왕삭(王朔) 현상’의 확산으로 문학계도 떠들썩하지만,²⁶⁾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저술활동에 참여하고, 심지어

26) 王朔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대중 작가의 한 사람인데, 그의 작품은 (1)

어 인민대학의 어떤 석사가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11권의 경제학 저술을 출간하였다면(유척명, 1993 : 99)²⁷⁾ 최근 ‘학술제조업’의 이상 성행도 ‘학술 포말화(泡沫化)’ 현상에 불과하여 정말 학술적 가치를 가진 것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뇌이, 1994 : 15) 지나친 혹평은 아닌 것 같다. “차가운 나무 걸상에 10년을 걸터 앉아 공허한 문장은 한 귀절도 쓰지 않는다.(板凳要坐十年冷 文章不寫一句空)”는 범문란(范文蘭) 교수의 엄격한 학풍을 구시대(舊時代)의 퇴물로 무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2-3개월만에 ‘단(短), 평(平), 쾌(快)’한 저서를 득의양양하게 써대는 것이 현실이라면(팽명, 1993) 그리고 이러한 풍조를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나 개탄의 차원을 넘어 수준 높은 ‘학술 성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중국의 인문학은 주변적 위치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Ⅲ. 반‘부유’(反‘腐儒’)전통과 지식분자 경시

지식과 학문, 학자와 지식분자가 존중, 우대되는 것은 철저한 반문명논자가 아닌 한 지식과 학문이 ‘진리의 탐색과 보호’를 통하여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 그리고 복잡한 문명질서의 유지와 국가관리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상식’은 역사상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관성’을 낳았다. 즉 (1) 어떤 유형의 권력자도 학문과 지식분자의 애호자를 자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권력과 부를 원하는 사람 역시 지식분자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학문은 권력에 참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학문 발전이 일정한 선에서 정체되었다. (4) 학문의 기본적인 성격과 방향은 지배체제의 안정적 유지라는 목표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5) 학문과 정치의 연결 고리가 ‘도’의 체득과 실현이었던 만큼 황제 이하 ‘치인’ 계층은 모두 ‘군자’ 내지 ‘성인’의 도덕성이 요구되었다. (6) 정치적 행위와 학문적 판단이 혼동되어 정략적인 구호가 학문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학문적 판단이 정치에 의해 좌우되었다.

물론 우리는 중국 역사상 독립불기의 정신에 충만하여 뛰어난 학술의 창조에 공헌

상업이익을 위한 창작, (2) 등장 인물의 痞子(패덕자)化, (3) 속된 隱語와 諧謔의 구사가 특징이다. 그러므로 ‘嚴肅文化’ 또는 ‘雅文化’의 전통을 고수하는 논자들이 이를 상업주의에 영합하여 사회도덕을 타락시키는 ‘죄악’이라고 공격하였지만, 한편 이것을 기존 도덕의 위선을 초극하는 대중문학의 한 형식으로 긍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劉則鳴 1993의 제10장 : 楊東平 1994a : 540~552 참조. 아울러 특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王力雄 1994와 王을 반박한 文思 1994 : 許紀霖 1994a 등을 참조.)

27) 또 3명의 대학생이 20여일만에 80만자나 되는 무협소설을 저술한 예도 있다고 한다.

한 학자들, 진정 학문을 애호하여 문화의 창달에 공헌한 명군, 학문과 정치 사이를 방황하면서 양쪽 모두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귀감적인 사대부, 정치적 또는 학문적 신조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순절파, 높은 이상에 미치지 못함을 항상 자성하며 겸손하게 노력한 사인(士人)들도 모두 적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상의 6가지 ‘관성’의 결과 곱악아세하는 지식분자, 지식분자로 행세하는 무식한 관료 및 그 후보생, 실제 경제에 대한 관심도 능력도 없이 공리공담만 농하거나 도덕군자의 외모와는 달리 사리사욕과 타락한 생활에 몰두하는 이른바 ‘腐儒(부유)’가 양산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대 ‘부유’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 것은 당연하였다. 물론 모든 사대부에게 요구된 ‘군자’와 ‘성인’의 이상은²⁸⁾ 사실상 모든 사대부가 ‘소인’ 또는 ‘부유’로 비난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정적은 물론 사상 또는 감정상으로 조금만 어긋나도 상대를 ‘소인’·‘부유’로 비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사정은 감안해야 한다.²⁹⁾ 또 “지금 윗 사람은 사인(士人)을 분명 도적으로 여기고 사인 또한 도적으로 자처한다.”는 朱子의 말이나, “지금 士인이 모인 곳은 풍속이 더 좋지 않다.”(『여씨사숙기(呂氏家塾記)』)는 지적도 士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과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士인 상호간의 비방 또는 자기 반성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라면 현실 사대부에 대한 불신 내지 경시의 풍조도 상당히 확산되었을 것이다. 사실 특히 청대 이후의 사대부를 ‘도적기(盜賊氣)와 노재기(奴才氣)’가 결합된 존재로 규정한 서복관(徐復觀, 1994 : 80-87)의 극언을³⁰⁾ 전면 부정하기도 어렵지만, “수제가 반역하면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한다(秀才造反 三年不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서생(百無一用是書生)”이라는 전통시대의 격언, 『유림외사(儒林外史)』에 희화적으로 묘사된 인물들,³¹⁾ 또는 사실상 ‘유망(流氓)’인 주제에 유자의 상징인 장삼을 걸치고 ‘책도독은 도둑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노신의 소설 주인공 공을기(孔乙己) 등은(유치명, 1993 : 12-21) 모두

28) 錢穆 1994에 의하면 이처럼 聖人の 인격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普通大規範’으로 설정하여 모두에게 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儒家·墨家·道家가 모두 공유한 중국 전통 사상의 특징이었다고 한다.

29) 李樹青 1994는 중국 지식분자의 전통적인 악덕 ‘文人相輕’의 원인과 관련 그들이 歐美의 화이트 칼라와는 달리 상공기업의 배경이 없어 퇴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요구된 완벽성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30) 徐에 의하면 ‘盜賊氣’는 科擧制 이후의 폐풍인데, 清朝의 억압책으로 ‘奴才氣’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31) 예컨대 과거 응시 자격이 없어 貢院에 옆드려 피를 토하며 울거나 과거 합격 소식을 듣고 미쳐다는 류의 인물들.

현실적으로 다수 존재한 ‘부유’의 상과 과히 먼 것도 아닌 것 같다.

황제 역시 ‘부유’를 경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를 액면대로 실현하려는 ‘진정한’ 사대부 보다는 오히려 순종적인 ‘부유’, 그러나 동시에 조롱받지 않는 ‘부유’가 더 필요하였다면, 황제는 제국의 위엄을 상징하는 관료 사대부를 형식적이거나 ‘군자’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성인’ 천자는 이념적으로 ‘군자’ 관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과거 시험은 사실상 치자계급의 관문이자 ‘군자’의 관문이었다. 결국 공개적으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부유’란 주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빈궁한 독서인과 관계에서 축출된 존재로 한정된 것이다. 전통시대 중국의 독서인이 그토록 과거에 집착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지만, 관료로 입신양명한 사대부들도 자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크게 의식한 흔적도 없었던 것 같다.³²⁾ 그렇다면 중국 독서인에게 과거의 폐지와 신해혁명의 의미는 명백한 것 같다. 즉 전통적인 사대부 전체의 ‘부유’화였던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망국의 책임도 있지 않은가? 신해혁명 이후 왕조체제 복귀 시도를 이들의 ‘군자’ 회복의 원망(願望)이라는 각도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철저한 공격이 과거(科擧) 폐지 당시 청소년기에 있었고, 따라서 전통사회의 구조와 비교적 유리된 세대들이 20-30대로 성장한 이후에 진행된 것도(김관도·유청봉, 1992 : 32)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화 운동기의 공격자와 피공격자는 모두 그 이전과는 성격이 달랐다. 즉 피공격자 ‘부유’는 이미 권력의 참여에 실패한 하층 독서인이 아니라 전시대 지적 엘리트층을 모두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미완’이나 ‘타락’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구시대의 규범과 그 대변자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격자가 자신의 무기인 민주와 과학을 전통과 불상용한 것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만, 그들은 그 이전 ‘부유’를 밑에서 조롱하던 백성도, 위에서 멸시하던 관료 사대부도 아닌 신식 교육을 받은 도시 지식분자였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백성의 눈치 보기도, 사대부의 관용도 모두 없었다. 더욱이 신가치의 명분으로 공격이 허용된 대상은 평소 억압적으로 군림하던 존재자가 아닌가? 신문화 운동의 반전통이 총체적인 ‘반역’ 또는 ‘반변(叛變)’으로 규정될 정도로 실제 급진적이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이런 배경에서 일단 이해할 수 있다.

근래 신문화 운동의 급진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망(救亡)의 절실한 요구 때문에 계몽이 포기되면서 비

32) 전통시대 사대부가 백성과 황제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한 자책과 우국의 충정을 절절히 토로한 문장은 많이 남긴 반면, ‘성인’에 도달하지 못한 채 ‘君子然’하는 내면적 갈등을 참회한 문장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성적인 급진적 행동으로 발전하였다는 이택후(1987)의 주장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논리가 지식분자 자체의 문제를 너무 간과한 점은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당시 구망의 절실함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분자들이 정치와 혁명에 직접 투신하였고, 실제 학문을 고수한 소수의 사람들도 항상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괴감 또는 참회의식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를 택한 많은 사람들 역시 학문을 계속하지 못한 좌절감을 버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허기림은 이것을 학문 즉 본업에 충실하려는 자아(id)가 요구하는 ‘본위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자극하는 초자아(super ego)가 요구하는 ‘우환의식’의 병존·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허기림, 1992b). 물론 천성이 호학지사인 사람이 부득이 정(政)을 택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공산당 최고 지도자였던 구추백(瞿秋白)도 자신의 선택을 ‘역사의 오회(誤會)’로 자인하며 차라리 소도시의 교원을 호구로 삼아 좋아하는 문예작품이나 읽으며 소요할 것을 꿈꾸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아닌가?³³⁾ 그러나 과연 중국 지식분자의 ‘본위’를 이처럼 ‘학(學)’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사년(傅斯年)의 다음과 같은 술회를 주목해 보자.

나는 본래 정치 사회에 불만을 품었지만, 좋은 길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문에 진입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생민을 잇을 수 없어 이 문 안팎을 뛰어 나갔다 뛰어 들어 오기도 하며 포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가도 멀리 가지 못하고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한가지도 이루지 못하였다.(『호적왕래서신선(胡適來往書信選)』(중) : 544)

이와 같은 태도를 전통적인 사대부의 ‘천하를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속성과 현대 지식분자의 시대적 책임감의 융합으로 지적하기도 하는데, 부사년의 경우 학(學)은 오히려 마땅한 정치 노선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택한 것임도 분명하지만, 학문에 안주할 수 없어 다시 나아가 ‘政’도 정부 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당 정부에 대한 비판

33)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같은 성격, 재능, 학식을 가진 사람이 중국공산당의 영수가 된 것은 확실히 하나의 ‘역사의 誤會’였다. …… 나는 매번 이런 환상을 하곤 하였다. 즉 나는 마음대로 작은 市鎮에 가서 教員이나 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교육발전이고 어찌구 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입 밥을 먹기를 구하는데 불과하다. 남은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 문예·소설·詩詞·歌曲 類를 읽으면, 이것은 훌륭한 逍遙가 아닌가?”(瞿秋白 『多餘的話』, 劉再復 1993 : 176에서 재인용) 중국공산당이 이 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근래 대륙의 학자들도 이것을 인용하는 사람이 많다. 진위 문제에 대해서는 Hsia 1968 : 44~42 참조. Hsia는 轉寫過程에서 약간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이 문장을 진본으로 판정하고 있다.

과 투쟁 활동이었다(악옥새·이천·마량관, 1994: 258-259). 일찍이 북경대학 교장 채원배(蔡元培)가 대학생들에게 학문을 “관에 오르고 재물을 모으려는 계단”으로 삼지 말것을 충고한 바 있지만, 당시 공개적인 정당 정치와 관료제도가 존재하였다면 일정한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대부의 정치 참여도 결국 관계 진출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20년대 이후 구망(救亡)을 위하여 신식 교육을 받은 지식분자의 정치 참여는 관직 취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점이 사대부와 다른 그들의 특징이었다. 물론 이것은 신해혁명 이후의 군벌정부 또는 국민당 정부가 효과적으로 그들을 흡수할 제도를 갖추지 못하였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기존의 정권에 별다른 기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어쨌든 그들이 택한 언론·집회·결사를 통한 재야에서의 공개적인 정치비판과 개혁 요구, 또는 지하에서의 혁명 운동은 서재나 교실에서 수행하는 독서, 교육, 연구 등과 같은 명백한 ‘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政’이었다. 그러나 부사년과 같이 ‘學’과 ‘政’을 왕래한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學’을 택한 사람들도 시속을 초월한 소수들(특히 학형파(學衡派)와 같은) 제외한 대부분은 ‘학술구국’의 명분을 가지려 하였으며(허기림, 1992b: 56-57), 지식분자의 ‘종정(從政)’도 정치 노선과 이념의 학습과 선전, 보급의 비중이 높은 단계에서는 실제 ‘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예컨대 호적이 ‘20년간 정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였으나 ‘20년간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호적년보(胡適年譜)』 1938년 7월 30일)고 자부한다고³⁴⁾ 해서 그를 순수한 학인으로 평가할 수도 없지만, 진독수(陳獨秀)·이대조(李大釗) 등을 비롯한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을 ‘學’과 무연한 ‘종정파’로 분류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재야의 신분으로 ‘學’과 ‘政’을 자연스럽게 겸하였으니, 사대부 보다는 ‘횡의(橫議)하는 처사(處士)’의 전통을 이은 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學’과 ‘政’의 미분리는 결국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시대, 지식 분자의 정치 참여가 전반적인 인문학의 수준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수준은 정치 참여에서 더 분명하게 노정되었다. 물론 모든 정치 주장이 피상적인 소개나 구호적인 단계에만 시종되었다면 Grieder가 적절히 표현한 대로 그들은 ‘아마추어 정치가’³⁵⁾의 명성을 그런 대로 즐길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가 되면 노획한 권모술수는 물론 정치 동원과 조직의 기술,

34) ‘談政治’가 바로 지식분자의 중요한 정치 참여 형식인데, Gried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胡는 1919년 ‘主義’와 ‘問題’의 논쟁에서 이미 ‘政治’를 말하고 있었다.(Grieder, 1970: 182)

35) Grieder 1981의 Chapter 6 “The New Culture Movement: Intellectuals as Political Amateurs” 참조.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인식과 통찰력이 필요한 법이다. 과연 그들은 이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는가? 호적과 이대조의 유명한 논쟁, 즉 ‘주의’와 ‘문제’의 논쟁은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이 논쟁은 흔히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자는 호적의 자유주의 개량론과 모든 문제를 일괄 ‘주의로 근본 해결’하자는 이대조의 사회주의 혁명론 간의 기본적인 대립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호적이 제기한 문제는 당시 사회주의뿐 아니라 무정부주의, 길드 사회주의, 안복파(安福派), 국민당 등 모든 정파와 개인들이 “중국의 현상을 연구하여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연구하지 않고 왕왕 서양학설을 가져와 자기 의론의 호신부로 삼고,”(“여경잡기(旅京雜記)”, 1918) “외국에서 수입한 주의를 공담하며,”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근본해결이라고 득의양양하게 떠벌리는”(“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주의’를 적게 말하자(多研究些問題, 少談些‘主義’)”) 작태였다(이림, 1991). 이 점은 이대조도 “우리들이 최근 발표한 언론은 지상의 공담에 편중한 것이 많고 실제 문제에 관계된 것이 적었으니 앞으로는 실제 방면으로 가서 토론하겠다.”(“재논문제주의의(再論問題與主義)”, 『매주평론(每週評論)』 1919년 8월 17일)는 답변을 통해 반성과 시정을 다짐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시대 ‘부유’를 철저히 파괴하고 신시대의 건설을 자임한 신지식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잠꼬대나 함으로써 중국 사상계의 파산을 초래한’(호적,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주의’를 적게 말하자”) 새로운 ‘부유’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학문의 기초가 없는 지식인의 ‘정치구망’의 폐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더욱이 이 ‘부유’는 숭양(崇洋)이란 오점을 또 추가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와 학문의 미분화 관계의 또 다른 폐단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학리(學理)가 희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강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예만 들어 보자.

(1) 나는 정치회의에 출석하면 ‘안건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 뿐, 나 자신의 ‘감각’은 내버렸으며, 내가 아는 그 적은 이론으로 문제를 번복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일은 없었다. 다만 나는 이런 공작을 줄곧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구추백, 『다여적화(多餘的話)』).

(2) 나는 대단히 미친 편견을 하나 갖고 있다. 나는 수십년간 세계정치를 관찰하였지만, 민주 헌정은 단지 유치한 정치제도의 일종으로서 정치경험의 혼련이 결핍된 민족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호적, “재론건국과전제(再論建國與專制)”).

엄격한 강령과 교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집단의 성원에게 강요되는 자아의 상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1)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2)는 중

국 자유주의의 대표적 지성 호적이 이처럼 국민학교 학생도 설득할 수 없는 유치한 주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³⁶⁾ 과연 이것이 호적의 신념이었는가? 그가 ‘광망(狂妄)한 편견’이란 단서를 단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은 단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 헌정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면, 그의 정치적 동기는 정당하였으며, 용기도 가상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천재 중의 천재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지성의 ‘수십년 관찰한 결과’라는 형식이었고, 더욱이 이 ‘광망한 편견’을 놓고 정문강(丁文江)을 비롯한 학자들의 논전이 이어졌다는 사실은(주질평, 1991) ‘부유의 회화’ 한 토막을 보는 것 같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유치한 논법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는 호적의 발상 자체인데, 이것은 그가 비난한 ‘주의’ 만능론자들 보다도 더 지식분자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호적도 ‘부유’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 모두가 성급한 ‘정치구망’의 병폐라 하겠다.

이러한 ‘부유’ 이외에는 신시대의 건설을 자임할 세력이 거의 없었던 것은 현대 중국의 비극이었지만, 지식분자의 궁극적인 파멸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만약 그들이 ‘문제와 주의’의 논쟁을 계기로 견실한 지식으로 무장된 ‘문제파’로 서서히 변신하였다면 중국 현대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현실’이 그럴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대신 자신만은 속일 수 없는 ‘부유’의 자괴감을 구망의 ‘행동’으로 극복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부유’가 치밀한 종합 설계와 집행 능력이 요구되는 개혁이나 혁명 이후의 건설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들이 혁명 활동 자체에 과도한 열정을 보인 이유는 자명하다.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행동을 정당화 해 줄 수 있는 고도의 이상주의와 ‘과학적’ 논리였다. 20년대 이후 중국의 많은 지식분자들이 마르크스주의에 그토록 경도한 이유의 일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혁명의 논리가 아닌 서구 근대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과 초극의 논리였다. 서구에 대한 후진 의식과 서구 문화의 중심에 참여하지 못한 서구화된 중국 지식인의 주변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에 경도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중국화하여 그 중심부에 섰을 때 그들은 다시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환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³⁷⁾ 더욱이 유포피아의 혁명 활동 공구화가 초래한

36) 그는 또 ‘중국은 지식이 너무 낮고 경험이 너무 유치하여 무수한 전문기술 인체가 필요한 인식 독재정치는 시행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中國無獨裁的必要與可能”(『獨立評論』 130)을 발표하였다.

37) 마르크스주의를 중국화한 것으로 ‘극찬’받는 이른바 모택동주의가 중국인의 ‘자존 회복’이라는 주관적 만족감을 크게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거치지 않아도 사회주의 정신으로 ‘개조’된 혁명 전사들이 초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사회

‘유토피아주의 이화(異化)’는 혁명의 목표를 더욱 이상화하고 급진화하였기³⁸⁾ 때문에 ‘부유’ 청산의 심리적 갈망을 더욱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 구추백이 고백한 바와 같은 자아의 상실은 더욱 심화되었지만, 이것 자체는 지식분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인민에 침투하여 인민을 조직하는 혁명가가 인민과 일체된 생활을 할 수 없으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즉 ‘추상적 인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민’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20년대초 소련에서 파견된 코민테른의 대표들이 중국의 명사 지식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의도적으로 ‘혁명 계급’과 접촉시키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는 일화도 있지만(Grieder, 1981 : 298) 속성상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도시 지식분자들이 노농계급과 일체감을 느끼며 생활하려면 실로 대단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 계기는 바로 민수(民粹)주의(Populism)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이것은 노농계급을 ‘순수 무구한 도덕성’을 보존한 ‘신성계급’, 따라서 타락한 지식분자들이 계몽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겸허하게 학습하고 찬양할 대상으로 이상화하였기 때문이다(유재복, 1993 : 181-184) 이와 병행하여 진행된 문화운동, 즉 민간문화 속에서 계승·발전할 민족문화의 진수를 찾을 수 있다는 운동은 전통문화의 철저한 파괴에 대한 대안이었지만, 이 역시 농민을 진정한 민족 문화의 주체로 끌어 올리면서 문화의 창조·담지자라는 전통적인 지식분자의 자부심조차 붕괴시키고 있었다.³⁹⁾

혹자는 20년대 이후 청년 지식분자들의 공독(工讀) 운동과 “인민의 속으로 가자(到民間去)” 운동의 급속한 확산 이유를 민수주의가 지식분자에게 착취계급의 일원이라는 ‘원죄’의식을 자극하여 스스로를 비하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정야부,

를 건설할 수 있다는 毛의 ‘신념’은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전제도 부정한 것이었지만, 전통적인 중국 사대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그들은 ‘道’만으로 대동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과학과 기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경제 성장이 인간의 의식과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생산력의 발전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참사를 가져온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배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국공산당이 문혁 이후야야 비로소 ‘역사발전의 動力’ 論爭과 관련, ‘生産力’을 강조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38) 林毓生 1991에 의하면 혁명의 목표인 유토피아의 정치혁명 공구화 사상은 李大釗에서 발단되었으며, 중국사회에 ‘유토피아주의 異化’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었던 것은 ‘corporate identity’와 ‘civic society’가 빈약하여 공공이익이 ‘rule-oriented’가 아닌 ‘goal-oriented’를 통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39) Schneider 1971의 Chapter IV “The Folkstudies Movement and Its Populist Milieu”, Chapter V “Popular Culture as a Modern Alternative” 참조.

1988). 확실히 ‘송양 부유(崇洋腐儒)’는 ‘민족혼의 담지자요 도덕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민’의 제자가 됨으로써 계급적(착취), 정신적(송양), 도덕적(위선적 엘리트 의식) 과오를 극복하며 ‘혁명에 헌신’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 코민테른과 당 중앙의 교조적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는 전투적 혁명과 장기간의 항일 전쟁의 현장에서 창백한 지식분자의 알팍한 ‘이론과 지식’은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다. 반면, 노농인민의 건강한 육체와 실생활의 경험이 오히려 생존의 관건이었다면, 지식분자가 진심으로 노농 인민을 섬기는 것도 순리일 것이다. 1942년 다음과 같은 모택동의 선언 앞에 혁명에 ‘열렬히’ 참여한 지식분자가 과연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혁명지식분자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지식분자)은 하나의 진리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즉 허다한 소위 지식분자란 기실 비교적 가장 지식이 없는 자들이며 공농분자의 지식이 때로는 그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개조를 거치지 않은 지식분자를 농민·공인과 비교하면 곧 지식분자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깨끗한 것은 오히려 농민과 공인이다. 비록 그들의 손은 시꺼멓고 다리에는 소똥이 묻었어도 자산계급·소자산계급 지식분자에 비하면 모두 깨끗하다.(“재연안문예좌담회적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的講話)”)

물론 이 말을 중국의 전통적인 지배자들의 상투적인 ‘민위귀(民爲貴)’ 구호나 혁명과 전쟁의 비밀상적인 상황에서 특히 분투하는 노동자 농민을 존중하자는 주장, 또는 지식분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발언 정도로 이해한 지식분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개조’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식분자에 대한 자아 부정과 노동자·농민의 지식분자 경멸을 요구한 것이었다.

IV. 지식분자의 ‘개조’와 해체

그 동기가 어쨌든 ‘부유’의 자기비하와 자아부정이 내면의 자각을 거친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으며, 이것은 자아의 부정이 아닌 자아의 재창조 과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부정이 강요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재창조의 자유의 지가 박탈되었다면, 단순한 지식분자의 ‘신분’ 포기가 아닌 ‘인간’의 상실을 의미한다. 50년 이전 이른바 ‘해방지구’ 지식 분자의 ‘개조’는 그래도 혁명 전사가 되기 위한 열정과 자기 희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광대한 ‘미해방지구’ 지식분자의 존재는 ‘해방지구’ 지식분자의 위상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혁명의 주역들도 ‘미해방지구’ 지식인의 환상을 깨는 무모한 짓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혁

명에 참여한 지식분자들은 권력과 노선 투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한 대부분 간부의 지위를 차지하여 경멸, 천시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즉 비록 '추상적인 지식분자'가 '추상적인 인민'을 주인으로 섬겼으나 '개조'를 표기한 지식분자는 혁명의 주체로 참여하고 대우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많은 지식분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혁명 참여를 단순한 사상과 이념의 선택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물론 사회주의 혁명을 반대한 지식분자도 많았으며,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이론상 공산주의 운동에 동조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연히 문인 증시 전통의 여운을 즐길 수 있었고, 항일 전쟁기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⁴⁰⁾ 경제적 지위도 높았으며, 정부와 정면 충돌하지 않는 한 학술연구와 창작활동도 큰 불편이 없었다(진평원, 1993 : 19).⁴¹⁾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국민당의 부패·무능력과 일당 독재에 대한 비판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지만, 자신의 이런 생활을 부정할 수 있는 공산당과 정면 대결하는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⁴²⁾ 때문에 그들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 속에서 양자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대체로 공산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것은 중일전쟁 이전까지 공산당이 본격적인 통치의 실적 없이 국민당 치하의 비민주주의와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고 반제국주의와 강력한 항일 투쟁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단순한 민주와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민족주의 이상주의 집단으로 인식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⁴³⁾ 자유주의자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공산 정권, 즉 소련의 실상에 대한 정보도 '반공 선전' 정도로 치부하면서 공산주의가 건설할 사회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도 하지 않았다면 '항일'에 앞서 공산당 '초멸'을 우선하려는 국민당 정책을 반대한 것은 어느 의미에서 당연하였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열세인 공산당은 '민주'와 반외세를 외치며 자유주의자들의 조정 역할을 환영한 반면, 주도권을 장악한 국민당은 그 역할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국민당 일당 독재의 종식과 민

40) 항일 전쟁기 각지의 대학이 운남성 곤명으로 결집하여 서남연합대학으로 재편되어 겨우 대학의 명맥은 유지하였으나, 실제 국민당의 '당화교육'으로 연구와 교육도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폭발적인 물가고로 인하여 학생 생활은 극도로 비참하였으며, 교수의 월급도 겨우반달 생활비 정도로 급락하였다고 한다.(菊池貴晴, 1987b : 301~304 참조)

41) 20년대 북경의 경우 일반 도서관 잡무 직원의 월봉이 6-8 洋塊인데 비해 대부분의 대학교수의 월봉은 300-500 洋塊로서 연구는 물론 학회 조직, 잡지·지서의 출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42) 이들의 활동은 陣志遠 主編 1993 ; 菊池貴晴 1987a ; 平野正 1983 등을 참고.

43) Edgar Snow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의 몇몇 기자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해방지구'의 실정을 독점적으로 크게 미화, 보도한 것은 이런 인상을 내외에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인민의 영원한 벗' Snow의 유골 일부가 현재 북경대 교정에 안장된 것은 그로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은 셈이다.

주 현정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들을 친공 세력으로 의심, 탄압도 불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종식되고 국공의 내전이 본격화되고 '해방지구'의 공산정권의 실상도 많이 알려지면서 자유주의자들의 의구심도 확산되었던 것 같다. 물론 그들도 구체제의 모순을 타도한 해방지구의 '신질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따른 폭력과 그 자의성에 불안을 감추지 않았으며, 공산주의의 지배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 특히 소련식의 체제에는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였다.⁴⁴⁾ 물론 그들에게는 국·공같은 권력의 실체는 없었다. 그러나 1946년 9월 "민주, 자유, 진보, 이성" 8자를宗旨(宗旨)로 저안평(儲安平) 주편으로 창간된 자유주의자들의 잡지 『관찰(觀察週刊)』이 판매부수 100,500을 기록하며 가장 영향력있는 대중 잡지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허기림, 1991: 40)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 준다. 이것은 공산당의 우세가 분명해지고 민주동맹도 이미 공산당을 지지한 1948년 12월 상해의 대학생과 교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국민당과 공산 정권에 대한 대한 지지율이 각각 15.9%, 3.7%였다는 사실과도 상응하는 것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 필연'처럼 찬양해 온 공산 혁명에 대한 당시 지식분자의 냉담한 반응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국·공 연합정부안과 분할통치안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72%, 8.4%에 달한다는 점이다.⁴⁵⁾ 즉 대부분의 지식분자들은 공산정권도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주 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정단동맹(1940년 성립)의 발전적 재편으로 성립된 민주동맹(1944년 9월)이 줄곧 공산당의 존재를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내전의 추이에 따라 점차 공산당에 우호적이고 유리한 태도를 취하다가 1948년 이후 공산당의 무력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전환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동맹의 '중간로선' 포기는 물론 비민주적 독점경제의 심화와 전면적인 파탄 위기에 처한 경제(菊池貴晴, 1987c: 40-51), 상상하기 힘든 부정과 부패 및 무법적인 행정(Pepper, 1978: 147-167), 그리고 국민당의 대대적인 탄압(平野正, 1983: 300-314)⁴⁶⁾ 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 저안평이 신

44) Pepper 1978의 Chapter 6 "Intelligence's Critique of CCP" 참조.

45) Pepper 1978: 90~91. 이 조사의 주체가 국민당계의 신문 『東南日報』였던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한편 1948년 3-4월 북미중국기독교학생연합이 재미 유학생 2,300인(응답자 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국민당에 의한 공산당 제거 지지 18%, 제 당파의 연합정부안 51.1%, 분할통치안 3.2%, 공산 정권 지지 2.7%, 연방제 지지 17.9%의 분포를 보였다.

46) 이 탄압은 1947년 6월 국민당 정부가 입수하였다는 중공의 비밀 문서 『中共地下工作綱要』를 증거로 시작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민주동맹은 정치적으로 중공의 부속물로서 중공의 지령에 의하여 국민당 지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랄하게 지적한대로 ‘국민당은 머리로는 공산당을 소멸시킬 생각만 하지만, 실제 양 손은 도리어 공산당을 배양하고 공산당을 대신하여 공산당에게 유리한 정치 형세를 조성하는 것만 한’(허기립, 1991 : 44) 점도 사실이다.

민주동맹에는 본래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인사들도 적지 않았지만,⁴⁷⁾ 국·공의 전쟁 상황에서 ‘해방지구’에서의 문제는 불문한 채 국민당 지역에서 국민당의 비민주만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 (더욱이 전시라는 특수 상황은 무시한 채) 결국 공산당에게 유리한 형세를 조성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면, 민주동맹은 공산당의 지지 세력으로 평가되어도 크게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국민당 통치에 대한 철저한 실망과 공산당 지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1948년 재미 중국 유학생들이(2,300명중 응답자 714명) 자유주의자들의 진로 선택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시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잘 말해 준다. 즉 개인적으로 국민당 참여 15.3%, 공산당 협조 3.0%, 정부에 협조하는 신정당 조직 19.5%, 공산당과 협조하는 신정당 조직 4.4%, 독립노선 신정당 조직 39.7%(Pepper, 1978 : 91-92).

따라서 민주동맹과 자유주의자들이 공산당 지지로 전환한 것은 적어도 공산 정권을 ‘민주’, 또는 자유주의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실체로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들은 양자 택일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당의 ‘반민주’ 대신 공산당의 ‘민주’를 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⁴⁸⁾ 여기에는 “신민주주의의 전단계를 통하여 일계급 독재나

47) 平野正은 민주동맹의 성원을 구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舊政治家’의 인사와 중공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정치의식을 가진 ‘無黨派 知識分子’로 대분하고 전자는 中國青年黨, 후자는 민주동맹 雲南支部가 각각 대표하였다고 하였다.(平野正, 1983 : 104~106) 중국청년당은 1945년말 민주동맹을 탈퇴, 46년에는 국민당 동조자가 되었다. 한편 劉烜은 운남지부의 지도자 聞一多가 1943년 이후 이미 공산당 문헌을 학습, 동조하였을 뿐 아니라 본래 공산당에 가입할 생각이었으나 민주동맹에 가입하여 공산당의 입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공산당의 의견에 따라 민주동맹에 가입하였으며, 그 때문에 공산당과 운남지부 간에 공산당은 운남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민주동맹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不成文的 협정’이 있었다고 한다.(劉烜- 1983 : 232~235, 328~329 참조)

48) 民主促進會 主席 馬敍倫이 ‘國共의 交戰은 2개의 상이한 정당의 전쟁이지만 兩黨 밖에 있는 민주적 입장의 각당·각파와 광범위한 민중이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았을지라도 실제 정신적으로 국민당에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馬敍倫, 1946a), ‘단지 민주와 반민주 2개 진영밖에 없다’(馬敍倫, 1946b)는 것을 명명한 것은 1946년 이미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예이지만(平野正, 1983 : 196 ; 菊池貴晴, 1987a : 47 참조), 1945년 10월 民主同盟臨時全國代表會議에서 青年黨의 余家菊이 주장한 ‘中立’·‘不偏不黨’의 견지가 ‘결과적으로 국민당에게 이용될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도(平野正, 1983 : 105) 그들의 친중공의 입장을 잘 말해 준다.

일당 독재도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 시도를 해서도 안된다”는 모택동의 선언(1945년 4월)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⁴⁹⁾ 물론 양자를 모두 진심으로 지지할 수 없지만, 택일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 장군매(張君勳)처럼 “양해를 저울질하여 가벼운 것을 취한다.(兩害相權 取其輕)”는 논리에 따라 국민당을 선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허기림, 1991 : 45). 이 선택은 최후에 대만행을 택한 호적이 내뱉듯이 말한 것처럼 국민당 치하에서는 “적어도 침묵의 자유는 누릴 수 있다”는 것(Pepper, 1978 : 227) 그리고 저안평의 다음과 같은 인식에 찬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적어도 국민당 치하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으니 자유가 아무리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과(多寡)’의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다면 그것은 ‘유무’의 문제가 될 것이다.(“중국의 정국”, 『관찰』 1947년 3월 8일)⁵⁰⁾

그러나 이와 같은 ‘통찰’보다는 역시 공산당도 ‘민주’에 속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연립정부부이나 분할 통치를 지지한 비율이 그토록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관찰』에 기고한 자유주의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49년 이후 대륙에 남았다는 것도 바로 이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사영, 1993).⁵¹⁾ 이 안이한 ‘믿음’, 즉 공산 정권이 지식분자의 자유와 비판기능을 허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50년 이후 이미 수차 ‘개조’를 강요당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즉 56년 그들은 공산당의 ‘쌍백’방침 즉 ‘백가쟁명’·‘백화제방’ 정책

49) 毛澤東 “聯合政府論”. 그러나 동시에 이 문장에서 “우리의 미래의 정책 혹은 최고의 정책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의 추진”임을 명백히 하였고, “新民主主義論”이 신민주주의 사회를 ‘프롤레타리아, 농민 및 지식인 계층이 다른 부류의 소부르조아 계층과 함께 基層勢力을 형성하는 과도적 단계’로 규정하면서 “그 사회는 프롤레타리아의 지도하”라는 것을 명시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공산당 영도하의 多黨制’가 실제 공산당 일당 독재가 명백하다면, 신민주주의에 참여를 동의한 민주당파는 이미 공산당 일당 독재를 승인한 것과 다름 없다.

50) 그러나 儲安平 역시 1948년 12월 상해를 떠나 공산 정권에 참여하였다.

51) 『觀察』 撰稿人簡況表에 수록된 79인 중 49년 이후의 행방은 大陸 51, 臺灣 11, 不明 14, 美國 3으로 분류된다. 謝泳은 당시 이들이 모두 대륙을 떠날 수 있는 조건도 있었고, 儲安平처럼 공산당의 변화를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륙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赤誠’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선택 이유를 柳永의 詞 “衣帶漸寬終不悔 爲伊消得人憔悴”로 답변하고 韓校 시절에도 다시 그런 순간이 와도 똑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錢鍾書의 입장은 확실히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楊絳, 1981 참조). 그러나 과연 그가 ‘민주’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였을런지 의문이다.

을 ‘상당한’ 공민권의 회복과 강조로 이해하였으며, 그것이 숙청대상을 확실히 끌어내기 위한 ‘양모(陽謀)’라는 것이 거의 눈에 보이는 57년 이후에도 그들은 이 순진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는 것은 다 말하고(知無不言), 말은 끝까지 다해도(言無不盡), 말하는 자는 죄가 없다(言者無罪)”는 말을 믿고 ‘공산당의 정풍(整風)을 성심성의로 돕기 위하여’ 용감하게 공산당의 일당 독재마저 회의하는 발언에 나선 것이다(왕덕록·이진진, 1988). 특히 공산당의 집권은 자유의 ‘유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예측한 저안평이 ‘당천하(黨天下)’를 신랄히 공격하고 나선 것은 무척 흥미있는 일이었다.⁵²⁾

그러나 지식분자들은 ‘환상의 믿음’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알지 못하였다. 현재 57년 반우파투쟁 이후 1976년 ‘문화대혁명 종결’까지 지식분자 정책의 착오와 당시 그들이 겪은 고통을 부인하는 중국인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건국 이후 56년까지의 지식분자에 대한 “단결, 교육, 개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⁵³⁾ 그러나 50년 이후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이 상황에 따라 지식분자와 관련 어떤 고무적이고 집값은 발언을 하였을지라도 지식분자의 운명은 부단한 ‘비지식분자화’(황평, 1993 : 32) 또는 ‘혁명왕국의 순종하는 신민(臣民)화’(유재복, 1993 : 177)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선 ‘열렬한 혁명가’는 물론 자유주의자들도 ‘민주’로 기대한 혁명 정권은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 원칙을 고수하였던 만큼 일당 독재, 즉 ‘당천하’는 불가피하였다. 만약 중공이 이것을 ‘법치’로 관철하려고 하였다면, 당의 ‘영도’를 이탈할 우려가 있는 지식분자의 활동을 사전 봉쇄하기 위하여 모든 언론 매체의 당의 후설(喉舌)화, 일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제약,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모택동주의와 상치되는 일체의 사상·종교·학술·문예의 연구와 교육 및 창작의 불허 등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⁵⁴⁾ 일단 만족하였을 것이다. 또 새로 도입된 ‘단위제도’도 지식분자의 ‘비지식분자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직능과 봉급 뿐만 아니라 식량·주택·복리·의료 등 생활 일체를 관장하는 이 ‘단위’는 선택의 자유도 없이 안배되었고, ‘단위’의 상실은 곧 생존의 기부를 의미하는 만큼 ‘자유직업’으로 ‘자유 표유(漂遊)’하는 지식분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직원’으로 대우받는 그들은 업무 내용의 차이는 있어도 일반 직

52) 당시 儲安平은 민주동맹의 기관지 『光明日報』의 주편을 위촉받고 49년 이전의 『觀察』을 재현하려는 희망으로 자신은 물론 민주 당파 인사를 설득, ‘공산당의 整風을 열성적으로 도운’ 결과 모두 밧에 걸려 희생되었다(戴晴, 1993 참조).

53) 趙德昌 1989:164 ; 施平 1988:105~109 ; 趙鵬飛·鄒志耀 主編 1990 : 256~259.

54) 學術·文藝·言論·教育·宗教 方面에 대한 장악과 통제는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1993 : 54~92 참조.

원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단위’의 한 분자일 뿐이었다(황평, 1993 : 31-32). 국가는 원하기만 하면 예컨대 북경대의 교수를 운남성 시골 소학교 사무직원으로 보내거나 하루 아침에 변소 청소원으로 만들어도 제도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중공 체제는 ‘인치(人治)의 전제’였다. 중국에는 “따를 법도 없고,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근래까지도 유행하였지만, 1942년 이미 “당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모택동 동지의 지시를 앙청한다.”는 비밀 결의를 통하여 권력의 인격화가 진행되었으며,⁵⁵⁾ 그 모택동은 다음과 같은 말도 기탄없이 한 사람이었다.

법률에 의거하여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관습의 양성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 헌법은 내가 참가하여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억이 없다. …… 우리의 매번 결의가 모두 법률이며, 회의도 법률이다. …… 우리의 각종 현장에 근거한 제도는 대부분, 90%는 관계당국이 만든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의거하지 않고 주로 결의와 회의에 의거한다. …… 민법과 형법에 의거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한다(『학습문선(學習文選)』).⁵⁶⁾

물론 이러한 ‘인치’를 오히려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⁵⁷⁾ 그러나 이 ‘인치 전제’의 근거가 지고지선의 혁명 이념과 그 실천이라면, 그 실천을 위하여 ‘인민’의 이름으로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은 한 사람의 인격에 모든 ‘인민’의 자아가 매몰된다는 것을 그들은 과연 어느 정도 자각하였는지 궁금하다. 지식분자들이 과연 이것을 ‘민주 집중’으로 안이하게 승인할 문제였는가? 이것은 단순한 자아의 포기가 아니라 지고의 도덕 완성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과학과 자학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혁명이 ‘신성한’ 노동자·농민 계급이 영도하는 것이라면, 또 ‘신중국’의 건설도 지식과 기능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전사에 의해서 ‘간초(趕超)’될 수 있다면, ‘개조’되지 않은 지식분자는 쓸

55) 辻康吾 1990 : 76.

56) 吉田富夫 1990 : 228에서 재인용.

57) 1957년 혁명에 참가한지 13·4년만에 右派로 처단되었고, 80년 이후 줄곧 민주화 운동에 활약하고 있는 劉賓雁의 다음과 같은 술회를 보면 毛澤東의 ‘法無用論’도 당시 분위기에서 그렇게 당돌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즉 “이 헌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때(1954), 당시 29세의 공산당원이었던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외국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순수한 부루조아 계급과 외국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헌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헌법은 부루조아 계급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공산당과 사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쨌든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劉賓雁 著, 陳逸雄 譯, 1990 : 63)

모 없는 '부유'에 불과하지 않은가? 공산 정권의 성립은 혁명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모든 지식분자를 '부유'로 만든 것이다. 친미숭미(親美崇美)·명리(名利)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주의·개인주의 사상도 이제 청산하지 않으면 안될 '악덕'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당이 그들을 '단결, 교육, 개조'해 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적어도 이미 '개조'하여 혁명 간부의 지위를 선점한 지식분자들은 이 '부유'의 '개조'가 다소 문제는 있어도 본인은 물론 국가를 위하여 불가피한 과정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과연 그들은 사상개조 운동의 필요성과 의의를 선전하는 데 앞장섰다(황평, 1994 : 40). 그러나 그들은 유소기(劉少奇)의 “논공산당원적수양(論共產黨員的修養)”(1942)이 제시한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높은 도덕 수준에서(유청봉, 1991 : 41) 보면 자신들도 '부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수십년을 함께 '혁명에 헌신'한 동료들에 대한 '비투(批鬥)'에 앞장 설 것을 강요당한 순간에도 그 다음 차례가 자기 가 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날이 왔을 때 막상 그것을 현실로 믿기가 어려웠다.⁵⁸⁾

1951년 각급 학교 및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르크스주의 학습과 자아비판 정도의 '개조'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사실 '부유'란 '무식'하고도 '참회'할 일이 많지 않은가? '균중'의 관용으로 '개조'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정말 감격하였으며, 자신의 인격과 정신이 '노예화'되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⁵⁹⁾ 그러나 『무훈전(武訓傳)』·『홍루몽(紅樓夢)』·『수호전(水滸傳)』 등과 같은 작품, 양수명(梁漱溟)·호

58) 1958년 3월 8일 右派로 단죄되어 出黨, 일체 직무의 취소, 행정등급의 강등, 下放農村 勞動改造의 처분을 받은 戈揚의 예만 들어 보자. “『新觀察』의 主編이요 잡지사의 책임자인 나는 이 회의에서 정식으로 反黨反社會主義的資產階級右派分子 즉 反動派 혹은 반혁명으로 선포되었다. 이것은 청천벽력이었으며, 잡지사 전체 공작인원을 떨게 하였다. …… 이 회의에 참가하면서 나의 심정은 자연 복잡하였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묶여서 형장으로 가는 阿Q의 심정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결국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면 이 날이 안성맞춤 마침내 왔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일종의 위안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또 다른 생각은 금후의 모든 것이 일체 끝났다는 것이었다. …… 또 다른 생각은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1935년 비밀독서회에 참가한 것부터 계산하면 만 23년 동안 철저히 공산주의 이상을 추구해 왔다. 반생을 바친 것이다. 나를 반혁명으로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또 다른 생각은 가소롭다는 것이다. 나는 王致遠이 내 죄상을 읽을 때 웃음이 나올 뻔 하였다. …… 나는 右派로 낙인찍히기 전에는 左派였다. 三反五反 운동 중 나는 인민출판사에서 '打老虎'운동을 영도하였으며, '胡風反革命集團' 비판 중에도 나는 문장을 썼고, '丁陳反黨集團' 비판시에 내가 사용한 '反黨暗流'라는 귀절은 周揚이 가져가 폭탄으로 사용하였다.”(戈揚, 1993)

59) 楊絳 1988은 비록 소설이지만 당시 사상개조 과정의 구체적인 실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적·호풍(胡風)·정령(丁玲)·풍우란(馮友蘭)·마인초(馬寅初) 등과 같은 학자, 유심주의·수리론리·우생학·상대성론리 등과 같은 학설과 과학 이론의 비판 형식을 통하여 끊임 없이 진행된 ‘개조’는 학술을 정치의 공구로 전락시키면서 학술 자체를 파괴시켰을 뿐 아니라,⁶⁰⁾ 대부분 비판의 기준과 관점이 모택동에 의해 제시되었기에 지식분자의 개조는 곧 모 지시의 복창·선전을 통한 세뇌가 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폐해는 비판의 강도가 곧 ‘개조’의 완성도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비판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예컨대 ‘투쟁’·‘반동’·‘죄행’·‘착오’·‘검토’·‘적’·‘타격’ 등으로 가득 차 전투적인 가학심리의 횡류를 조장하였다는 점이다.⁶¹⁾

지식분자의 불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우파 곧 반동, 반동 곧 ‘천민’의 등식이 관철되고⁶²⁾ 반우파 투쟁과 문혁을 거치며 사실상 대부분의 지식분자들이 하방(下放)되거나 간부학교에 입교되어 공농계급에 의한 ‘재교육’을 접수하면서 지식분자 곧 천민이라는 역사상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독서를 많이 할 수록 더 반동’이라는 말과 지식분자를 ‘취노구(臭老九, 냄새나는 최하등 천민)’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 지식분자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더욱이 이들은 단순한 ‘천민’ 아니라 ‘혁명 정신’만 앞세우면 누구나 멸시하고 학대, 아니 ‘가학적 악희(惡戲)’를 즐길 수 있는 노리개였으며, 심지어 타살할 수도 있는 ‘우괴사신(牛鬼蛇神)’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희는 ‘대인물’에 대한 ‘소인물’,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잠재적 질서와 증오를 횡류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우괴사신’의 ‘개조’가 아니라 ‘소인물’과 ‘아이들’의 ‘비인간화’였다. 70년대말 이후 당시 지식분자의 고통을 고발하는 이른바 ‘상흔문학’이 크게 유행하였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성 파괴’와 같은 추상적인 몇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특수한 역사 정황’이었던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소건(蕭乾)과 양강(楊絳)의 체험기 일단으로 당시 상황을 어렵פות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60) 예컨대 胡適批判 운동 중 총 300만자에 달하는 문장이 양산되었으나, 대부분 논지·제목·관점·재료·文風·어투 등도 대동소이한 무가치한 것이었고, 극소수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도 武斷의인 形而上學的 추론, 마르크스주의 이해와 활용이 대단히 단순·유치한 수준을 벗지 못하였다고 한다(胡明, 1991 참조).

61) 黃平은 비판과정은 비판의 내용이 무엇이든 언어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이 중요하며, 그 반복된 언어를 통해 인간의 思惟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틀로 고정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黃平, 1993 : 34), 필자는 아울러 ‘加虐의 暴力의 觀感화’라는 점을 추가하고 싶다.

62) 문혁기 출신계급 및 계급구분과 관련 혁명의 이론적·잠재적 공포자인 ‘紅五類’ 즉 노동자출신·貧農, 下層, 中農出身·혁명간부출신·혁명군인출신·혁명열사군속출신 등에 대치된 ‘黑五類’가 舊地主出身·舊富農出身·반동분자출신·악질분자출신·우파분자출신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 이 등식은 당연하였다.

(1) 57년 여름 나는 큰 건물 안에 앉아서 비투(批鬮)를 받을 때, 선량한 사람도 이 빨과 손톱을 들이대고 성실한 사람도 눈을 부릅뜨고 날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절망하였다. 반우경투쟁 이후 이 대지는 더욱 침적(沈寂)해졌다. 혁명자는 유유낙낙(唯唯諾諾)하는 자로 변하였고 혁명은 음침한 것으로 변하였다. …… 66년 붉은 8월이 되자 혁명은 음침(陰慘)한 것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것으로 변하였다. 골목 어귀 쓰레기 더미에 시체 6개가 버려져 있었다. 아직 기가 끊기지 않았는데 화장장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큰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학교에서 일생을 교육에 종사한 노교사가 맞아 죽은 후, 조반파(造反派)가 교장에게 그 시체를 안고 발코니에서 춤을 추라고 핍박하자, 교장은 결연히 뛰어 내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 때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아릅답고 끌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도 그 행렬에 참가할 뻔 하였다. …… ‘삼문(三門) 간부’인 (집사람) 문결약(文潔若)이 높은 모자를 쓰고 원(院) 안의 큰 차 위로 끌려가 비투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주변의 이 세계에 흥미를 잃어 버리고 말았다(소건, 1993).

(2) 어느날 밤 같은 숙소의 ‘우귀사신’이 모두 숙소의 대원 안에서 비투를 받았는데, 어떤 자가 우리를 혁대로 사납게 때렸다(남편 60세의 노인). 묵존(默存)⁶³의 등에 끼얹은 침, 콧물과 죽은 얇은 여름 옷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나는 머리 카락을 잘랐다. 비투가 끝나자 또 우리에게 신발을 벗고 한 줄로 서라고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뒷사람이 앞사람의 등에 기대어 원 안의 화단을 뛰어 돌게 하였다. 누가 멈추고 나가지 않거나 몸을 바로 일으키면 곧 매가 날라왔다. 호령을 하는 자는 노혁명 직공의 부인인 ‘극좌 아줌마’였고, 집행자는 10여세의 남녀 아이들 한 떼였다. …… 숙사 대원의 일층에 홀연 16·7세의 홍위병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일요일 큰 건물 안에서 ‘우귀사신’을 소집하여 훈화를 하였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대원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깨끗히 치우라고 명하였으며, 또 일련의 금령을 내렸다. 즉 유유·생선·고기·달걀을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단지 와와(窩窩)·소금 절인 야채·토두(土豆)만 먹으라는 것이다. 당시 이미 많은 금령이 있었고 누가 만든 것인지도 모르지만, 초모(草帽)를 써도 안되고, 양산을 받쳐도 안되고, 가죽 구두를 신어도 안된다는 등등이 있었다(양강, 1993).

이렇게 ‘개조’된 ‘문혁’의 ‘소장(小將)’들도 곧 ‘지청(知青)’이라는 신분으로 변경 오지에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며 “문화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격렬하게” 노동자의 “심령과 걱정을 야만적으로摧殘(摧殘)시키는” “원시 체력노동”, 즉 “지혜, 사상과 과학기술이 아니라 체력에 의지하여 자연과 싸우는” “원시노동”으로(등현, 1992 : 76-77) 근 10년간 ‘재교육’되었다. 거기에 근 2,000만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면, 당대의 지식

63) 유명한 소설 『圍城』의 작가 錢鍾書. 필자는 그의 집필한 『管錐編』처럼 동서고금에 박학한 예를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은 錢鍾書가 당한 박해 장면과 아울러 『管錐篇』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집필된 것인가도 잘 전하고 있다.

분자는 물론 차세대마저 완전 꺾멸된 셈이었다.⁶⁴⁾

70년대말 ‘문혁’의 종료와 함께 ‘우귀사신’은 다시 ‘노(老) 선생’이 되었고 상당수의 ‘지청’도 대학생이 되었으며, 개혁과 개방의 변화 속에서 지식분자들은 ‘잊기 어려운 상흔’과 ‘눅기 어려운 얼음 가루’를 안고서도 서서히 본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논자들이 지식분자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이에 따른 무력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호화로운 백화점이나 고급 식당에서 수천, 수만원을 ‘돈은 먼지처럼 뿌리는’ 대관(大款)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육체노동에 비해 낮은 정신노동자의 임금 체계와 교육계통 종사자의 저소득 문제는 사실 심각한 것 같다.⁶⁵⁾ 중국인과의 대화 중 북경 택시 운전수의 월수가 북경대 교수의 4-5배라든지, 부교수급 부부 양인의 월급이 고교를 졸업하고 개인 기업에 갓 취직한 딸의 월 수입보다 못하다는 따위의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으며, 신문에는 박봉 교사의 월급마저 수개월 체불되었다는 기사도 드물지 않다.⁶⁶⁾ 이런 상황에서 고급 지식분자들의 평균 수명이 전체 국민 평균 수명에 비해 10세 정도 낮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지만(축화신, 1993 : 81) 우수 교사들의 대거 이직(양춘무, 1994),⁶⁷⁾ 교사들의 회사직 겸직 성행, 예산을 자체 조달하기 위한 각급 학교의 기업 경영도 연구와 교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도 분분하며(양동평, 1994b : 66)⁶⁸⁾ 이른바 ‘하해(下海)’한 문인과 교사들의 ‘성공 사례’, 대중 저질 문화 종사자들의 엄청난 수입 등은 이 도도한 ‘상조(商潮, 장사의

- 64) 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17종의 學報에 논문을 발표한 3,500명중 36-47세의 학자가 가장 적은데, 바로 이들은 ‘문혁’기 시간을 낭비한 세대라는 것이다(祝華新, 1993 : 82)
- 65) 祝華新에 의하면, 1991년 정신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육체노동자에 비해 7.6% 낮았고, 1992년 교육계통 직원의 연평균 임금은 2,737원으로 국민경제 12개 부문에서 10위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또 최고 과기연구원의 월 수입이 500원이 못되고 박사생의 기본 월급이 140원인데 비해 북경 중심가 공중변소 요금수납원의 월급은 200원이었다고 한다(祝華新, 1993 : 81).
- 66) 1993년 9월의 불안전 통계에 의하면 26개 省·市·自治區에서 中·小學 교사의 월급 체불액이 14억원이며, 그 중 교사절을 전후하여 7억여원을 지불하였으나 아직 6억여원이 미불 상태라고 한다(楊東平, 1994b : 66). 또 1993년 5월말 현재 섬서성의 경우 60-70% 縣의 중·소학교 교사 월급 체불 상태가 심각하며, 총 체불액은 6,914.12만원으로 심한 경우 12개월이 체불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光明日報, 1993b). 교사 1인 1년 평균 수입 2,000여원을 고려하면 월급 미수령 교사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67) 1992년 전국 소·중학 교사의 이직자는 총 21.6만, 전체 교사의 2.4%인데, 이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예컨대 상해의 경우 1992년 1,500인이 1993년에는 2,292인으로 증가) 이들이 대부분 학력도 좋은 중견 교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 68) 清華大學 내의 기업은 이미 100개가 넘고 교내 각종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청년교사는 전체 청년교사의 90%에 달하며, 1993년 南牆을 허물고 상점을 짓기로 결정하여 큰 충격을 준 北京大學도 이미 40개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

물결)’를 타지 않은(못한) 지식분자의 좌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문학’기의 정치적 ‘취로구(臭老九)’에서 해방된 지식분자들이 이제 수입면에서 명실상부한 ‘취로구’가 되었다는 지적도 과히 틀린 것이 아니라면(유치명, 1993 : 50-56), 당시(唐詩) 전공의 노교수가 청소원인 부인의 수입이 자기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정통 학문이 청소보다 못하다(斯文不如掃地)”라고 한탄한 것이나(유치명, 1993 : 61), 평소 자신 만만하게 문인의 상업종사를 경멸하던 한 문인이 ‘고액’의 세탁기 수리비를 요구하는 기능공과 언쟁한 이후 의기소침하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였다는 것도 고립된 현상만은 아닌 것 같다. 즉 “과거에는 독서를 많이 할수록 더 반동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책을 많이 읽을수록 더 무용하다. 지쳤다! 이 세상 앞에서 무력감을 스스로 느낄 뿐이다.”(소구, 1993)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매타(梅朵)의 발언은 ‘성실한’, 그러나 ‘비극적’인 중국 지식분자의 과거와 현재를 보다 잘 압축하고 있는 것 같다. 즉

30년대초를 회상하면, 당시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 공부할 때였는데, 곧 5·4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학교 도서관의 인문정신이 충만한 많은 책들이 나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였다. …… 점점 몽롱하나마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형성하였다. 그 시대는 또 우리 민족이 밖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안으로는 봉건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나에게 정치 조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이 때부터 약간의 정치 관념이 자연 나의 사상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사회에 나아가 종사한 것이 신문기자라는 이 직업인데, 나는 적극적으로 그 비판 정신을 발휘하였으며, 그것을 자신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신의 생명가치의 체현으로 생각하였다. 그 때를 회상하면 확실히 우리들은 모두 열열히 인문 이상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다. …… 나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약한 존재로서 많은 지식분자들의 공통된 병폐를 갖고 있었다. 나는 약간의 정치관념에 대해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믿었지만, 일단 그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 더욱이 그것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인문주의와 모순되었을 때, 나는 주견을 견지할 수가 없었으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소위 사상개조의 합리성을 승인하였다. 20년의 풍우를 겪으면서 마음 속에 있는 그 한점의 인문정신의 불씨는 비록 완전히 꺼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영혼은 산산조각이 되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들은 객관적인 원인으로 자신을 관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자신이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항상 자책을 하면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현재 (도도히 흐르는) 물욕주의의 조류에 엄몰(淹沒)되고 말았다.(매타, 1994)

V. 출로자살? 환상? ‘무괴(無愧)’?

칭말에서 현재까지, 중국 근현대사의 수많은 정치적 곡절과 격변. 그리고 이에 수반한 각종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과 횡일. 이것은 모든 중국 지식분자가 피할 수 없는 거

대한 조류였다. 흑자는 능동적으로 그 조류를 타거나 맞서기도 하였고, 흑자는 피하려고 하였으나 휩쓸려 떠 내려갔으며, 그것을 완전히 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흑자에게는 이것이 이상, 희망, 열정, 성취, 희열, 득의의 과정이었으며, 흑자에게 이것은 좌절, 빈민, 환멸, 절망, 자비(自卑), 자괴(自愧)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양자가 끊임 없이 교착되며 밀려 왔을 것이며, 그 결과 현재 중국의 지식분자들은 심각한 지적, 사회적, 경제적 정체(整體)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처절하게 출로를 모색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위기를 자살로 대처한 사람도 많았다. 신문화 운동의 급진성이 노정되기 시작한 1918년 10월, 청말의 신사(紳士)요 민국시대의 언론인 양제(梁濟, 양수명의 부)는 북경의 정업호(靜業湖)에 몸을 던졌다. 이유는 ‘초년에 배운 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청말 신사로서는 비교적 급진적인 개혁론자였던 그도 신해혁명 이후에 진행된 ‘도’의 타락은 목숨을 던져 지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Alitto, 1979 : 17. 36-47) 이것은 좌절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도’의 보존에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27년 6월 2일 초기 서양철학에 심취하였으나 국학에 많은 공적을 남긴 현대 중국 학술의 태두 왕국유(王國維)가 북경 이화원(頤和園) 곤명호(昆明湖)에 투신한 것은 의미가 달랐다. 이 죽음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만, 그의 ‘문화 탁명(託命)’을 받은 역시 현대 중국의 대국학자 진인각(陳寅恪)은 다음과 같은 반사(輓詞)의 서(序)를 썼다. 즉 “무릇 한 문화가 쇠락한 시기에 이 문화에 감화된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 문화를 표현한 정도가 더욱 클수록 그가 받는 고통 역시 더욱 심하며, 그 정도가 극도에 달하면 자살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과 義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다. …… 대저 금일 적현신주(赤縣神州)는 수천년래의 거겁기변(鉅劫奇變)에 처하고 있는바, 겁(劫)이 다하고 변(變)이 끝나면 이 문화의 정신으로 응취(凝聚)된 사람이 어찌 운명을 같이하여 동진(同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당(觀堂, 왕국유) 선생께서 죽지 않을 수 없는 소이었다.” 즉 그는 자아의 근원인 ‘도’의 완전 몰락을 인정하고 ‘도’와 운명을 같이 한 것이었다(엽가몽, 1994 ; 유몽계, 1992a)

양제와 왕국유를 자살시킨 급진적인 변화의 주역들은 혁명에 몰두하였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민혁명, 국공의 분열, 항일, 내전, 그리고 공산당의 승리는 국민당 세력을 대만으로 몰아냈다. 이 때 20년대 언론계에서 활약 도중 장개석을 ‘주군’처럼 모시기 시작한 진포뢰(陳布雷)는 대만행 대신 죽음을 택하였다. 역사의 대세가 국민당의 독재와 부패 속에서 ‘도’를 지켰다는 그의 ‘환상’을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도’에 개종할 생각도, 더 이상 ‘도’를 잃은 ‘주군’을 따를 수도 없었던 것이다(허기립, 1992e).

공산당은 30년간 추구한 ‘도’로 천하를 통일하였고, 노혁명 간부 지식분자들은 ‘신중국 건설’의 희망으로 열광하였으며, 여기서 처음 ‘민주’의 구현을 기대한 지식분자들도 이 ‘도’에 의한 ‘개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반우파투쟁, ‘문혁’과정에서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자살하였다. 전백찬(翦伯贊), 노사(老舍), 등척(鄧拓) 등등. 그들은 자문하였을 것이다. ‘이상’이 나를 배반한 것인가, 내가 ‘이상’을 배반한 것인가를.

그러나 1978년 3월, 당원도 아닌 한 여인이 지식들에게 ‘화국봉 주석과 함께 영원히 혁명할 것’과 장기간 수감 중 지급되지 않았던 월급과 저축 5천원을 모두 국가에 헌납할 것을 유언하며 자살한 예는 더욱 비극적이다. 해방전 인도 화교학교의 교사였던 그녀는 해방후 북경대학의 러시아어 교사가 되어 줄곧 입당을 열망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67년 12월 ‘인도 특무’로 체포, 73년 5월 심신이 완전 파괴된 상태로 ‘보외취의(保外就醫)’ 처분을 받았다. 남편 역시 이에 앞서 체포된 후 1973년 12월 정신병자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감옥에서 철저히 세뇌되어 ‘모택동 극좌로선의 가장 견결(堅決), 완고하고, 가장 편집(偏執)된 성실경건한 신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인방’과 화국봉만이 모주석의 유지를 계승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언행으로 이미 그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가족, 주변 사람들과 사사건건 충돌한 끝에 결국 자살한 것이다(주타, 1993) 그녀는 ‘이상’의 이름으로 강제 세뇌된 ‘착란의 환상’을 위하여 자살한 것이다.

이에 비해 1934년 1월 장개석 암살 실패로 명성을 날렸고 1939년 입당시 모택동이 친히 비준하였다는 화국지(華克之)는 1955년 반당분자에 연루되어 11년의 감옥, 13년의 ‘감독개조(監督改造)’ 생활을 겪으면서도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견지하였으며, 당의 ‘도’를 믿었다. 그는 스스로 감옥을 ‘성옥(聖獄)’으로 부르며 진정한 ‘학교’로 생각하고 노동과 독서에 성실하였고, 근 3,000편의 시를 통하여 당에 대한 굳은 믿음과 충성을 절절히 표현하였으며, 1979년 복권된 이후 24년간 받지 못한 월급의 대부분도 혁명 열사 후예에게 기증하고 청빈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광명일보, 1993a).

많은 지식분자들이 박해와 곤경 속에서도 당과 인민, 그리고 모주석에 대한 애정과 충성을 잃지 않았으며, 그 신념으로 고난을 극복하였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혹은 처형을 받을 때 전통시대 사대부가 보인 행동유형과 혹사한 이 태도를 과연 이상주의의 모범으로 긍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상의 배신을 믿을 수 없어 자위적인 환상이 필요한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것인가? 혹 이것은 무소불능한 당과 모주석의 절대 권력을 너무나 잘 안 나머지 이런 태도가 아니면 다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러한 절대 신뢰가 결국 절대 전체의 기초였다면 이런 태도를 찬양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조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식분자들의 자살도, 화극지와 같은 ‘충절’도 다시는 재연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매타처럼 ‘이상’의 이름 앞에 자아를 포기한 과거를 자책하면서 다시 몰욕주의에 εμπ물된 지식분자들이 이 늪을 어떻게 벗어 날 것인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급진적인 이상의 위험과 폐해를 지적하고 있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양강의 술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매일 가슴에 범죄를 쓴 패를 걸고 군중의 격심한 분노와 지독한 욕설 속에서 내가 정말 인민을 배반하고 당을 배반하였다고 스스로 믿은 적도 있었지만, 나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였다. 즉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물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그 이유는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고 나 역시 말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나는 스스로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양강, 1993 : 174).⁶⁹⁾

‘인민을 배반했다’고 해도 ‘무괴(無愧)’하다는 자신감, 그것은 아마도 그가 ‘우귀사신’으로 박해받는 그 순간에도 몰수된 『동키호테』의 번역 원고를 애타게 찾으려는 학자의 소박한 열성, 그리고 ‘천하를 자기의 소임으로 여기며’ ‘역사의 주체’, ‘도의 수호와 실천’ 운운하는 허위의식을 벗어 버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곧 자신이 ‘부유’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었다. 바로 이 양강이 간부학교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해방되었을 때, 남은 사람에 대한 미안함도 누를 수 없는 기쁜 마음을 솔직히 표시하면서 10여년의 ‘개조’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런 정도의 ‘사심(私心)’조차 버리지 못한 자신의 ‘개조’되지 않은 실상을 담담히 고백한 것(『간교육기(幹校六記)』) 또한 인상적이다.

〈참 고 문 헌〉

곽우봉 저, 유동환 역

1992 “‘문화열’ 연구 중의 비이성화 경향에 대한 비평”,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논전 시분과 엮음, 『현대중국의 모색-문화전통과 현대와 그리고 문화열-』, 서울 : 동녘.

김교빈

1992 “문화열과 현대중국”,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논전시분과 엮음, 『현대중국의 모색-문화전통과 현대와 그리고 문화열-』, 서울 : 동녘.

李成珪

1994 “東洋의 學問體系와 그 理念”, 『現代의 學問體系』, 서울 : 민음사.

69) 楊絳 1993 : 174.

李澤厚

1987 “啓蒙과 救亡의 二重 變奏”, 『中國現代思想史論』, 北京. (김형중 역, 『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 서울: 知識産業社, 1992)

왕준의 · 방덕린 저, 유동환 역

1992 “1980년대 ‘문화열’에 대한 평가와 반성”,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논전사분과 위음, 『현대중국의 모색-문화전통과 현대와 그리고 문화열-』, 서울: 동녘.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논전사분과 위음

1992 『현대중국의 모색 -문화전통과 현대와 그리고 문화열-』, 서울: 동녘.

錢理群

1995 “歷史에 대한 反省과 지식분자의 困惑”, 1995년 5월 서울에서의 강연(근간).

甘陽

1989 “八十年代文化討論的幾個問題”, 甘陽 編 『中國當代文化意識』, 홍콩: 三聯書店.

戈揚

1993 “這也是歷史-我是怎樣被打成爲右派的-”, 林道群·吳讚梅 編, 『這也是歷史』, (中國知識分子歷程1), 홍콩: 牛津大學出版社.

光明日報

1993a “傳奇老人華克之”, 『光明日報』 1993년 6월 6일.

1993b “陝西省採取四措施徹底解決拖缺教師工資問題”, 『光明日報』 1993년 8월 26일.

曠新年

1994 “學術派對現代性的反思”, 『二十一世紀』 1994(3).

金觀濤·劉青峰

1992 “中國文化的意識形態牢籠”, 『二十一世紀』 1992(2).

羅筠筠

1994 “智慧的苦痛”, “文學: 呼喚與社會變革期相適應的新道德-首都部分學者, 理論家研討社會轉型期的文學與道德問題-”, 『光明日報』 1994년 6월 22일. (『新華文摘』 1994(8) 所收)

羅榮渠

1994 “人文憂思的盛世危言”, 『東方』 1994(6).

雷頤

1994 “蹣跚于經濟政治間-漫論當前學術困境-”, 『東方』 1994(3).

戴晴

1993 “儲安平與黨天下”(節錄), 林道群·吳讚梅 編, 『這也是歷史』, (中國知識分子歷程1), 홍콩: 牛津大學出版社.

陶大鏞 司會

1994 費孝通·任繼愈·周有光·陳來·蘇雙碧·袁行霽·李申 參석, “傳統文化·改革開放·世界新格局”, 『群言』 1994(2). (『新華文摘』 1994(5) 所收)

陶東風

1994 “中心與邊緣的位移-中國知識精英內部結構的變遷-”, 『東方』 1994(4).

鄧賢

1992 『中國知青 夢』, 人民出版社.

馬慶泉

1993 “知識也創造價值”, 『光明日報』 1993년 8월 23일.

馬敘倫

1946a 『周報』 37.

1946b 『時與文』 8.

梅朶

1994 “也談詩人的憤怒”, “人文精神與文人操守”, 『新華文摘』 1994(11).

文思

1994 “道德墮落是問題之所在嗎”, 『東方』 1994(3).

文正邦

1994 “社會主義市場經濟面臨的挑戰-權,錢,情與法的鬭爭-”, 『政治與法律』 1994(1). (『新華文摘』 1994(4) 所收)

白樺

1994 “困惑的年代”, 『明報』 1994(1).

費孝通

1988 “論知識階級”, 『費孝通選集』, 天津: 人民出版社.

謝冕

1994 “文學: 呼喚與社會變革期相適應的新道德-首都部分學者, 理論家研討社會轉型期的文學與道德問題-”, 『光明日報』 1994년 6월 22일. (『新華文摘』 1994(8) 所收)

謝泳

1993 “『觀察』撰稿人的命運”, 『二十一世紀』 1993(10).

徐復觀

1994 “中國知識分子的歷史性格及其歷史的命運”, 湯學智·楊匡漢 編, 『台港暨海外學界論中國知識分子』, 河南人民出版社.

蕭乾

1993 “一個老知識分子的心境素描”，林道群·吳讚梅 編，『這也是歷史』，(中國知識分子歷程1)，홍콩：牛津大學出版社.

小鷗

1993 “修”，『光明日報』1993년 9월 11일.

邵道生

1994 “社會的發展與道德的衰退”，“社會轉型時期的價值觀念和文化筆談”，『中國社會科學』1994(3). (『新華文摘』1994(6) 所收)

蘇許民

1994 “知性主體精神與中國文化的現代化”，『江漢論壇』1994(5). (『新華文摘』1994(10) 所收)

孫尙揚

1994 “在啓蒙與學術之間：重估『學術』”，『二十一世紀』1994(3).

施平

1988 『知識分子的歷史運動和作用』，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岳玉璽·李泉·馬亮寬

1994 『傅斯年-大氣磅礴的一代學人-』，天津：人民出版社.

楊絳

1981 “誤傳記妄”，“幹校六記”6. (『楊絳作品集』，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3 所收)

1988 『洗澡』. (『楊絳作品集』，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3 所收)

1993 “丙午丁未年紀事”，林道群·吳讚梅 編，『這也是歷史』，(中國知識分子歷程1)，홍콩：牛津大學出版社.

楊東平

1994a 『城市季風：北京和上海的文化精神』，北京：東方出版社.

1994b “1993：中國教育的發展與危機”，『東方』1994(1).

1994c “中國高等教育的蘇聯模式-關於1952年的院系調整-”，『東方』1994(3).

揚人

1992 “北京文化叢書派-政治壓力下的文化進路-”，『當代』73.

楊春茂

1994 “下個世紀中小學誰執教鞭-基礎教育的基礎在動搖-”，『瞭望』1994(4). (『新華文摘』1994(4) 所收)

梁曉聲

1994 “1993——一個作家的雜感-”，『山西文學』1994(4). (『新華文摘』1994(6) 所收)

余英時

1987a 『士與中國文化』，上海：人民出版社.

1987b “中國近世宗教倫理與商人精神”，『士與中國社會』，上海：人民出版社.

1991 “中國知識分子的邊緣化”，『二十一世紀』1991(8).

葉嘉瑩

1994 “從性格與時代論王國維治學途徑之轉變”，湯學智·楊匡漢 編，『台港與海外學界論中國知識分子』，河南人民出版社.

吳建國·陳先奎·劉曉·楊鳳城 主編

1993 『當代中國意識形態風雲錄』，警官教育出版社.

吳富恒·狄其驄

1994 “面臨挑戰的文化建設-文化問題縱橫談-”，『文史哲』1994(4). (『新華文摘』1994(11) 所收)

吳標勛·陳依元

1994 “論新政勢下精神文明建設的變與不變”，『文明建設』1994(9). (『新華文摘』1994(11) 所收)

王德祿·李眞眞

1988 “覺醒的代價-“雙百”方針的歷史回顧-”，『走向未來』3(3).

王德勝

1994 “民間的'學術景觀-90年代大陸'學刊現象'-”，『東方』1994(5).

王力雄

1994 “渴望墮落-談知識分子的痞子的傾向-”，『東方』1994(1).

王蒙

1994 “人文精神問題偶感”，『東方』1994(5).

王富仁

1994 “文化危機與精神生產過剩”，『文學世界』1994(1). (『新華文摘』1994(6) 所收)

劉德忠

1993 “關於文化工作面臨的若干理論和實踐問題思考”，『人民日報』1993년 7월 22일.

劉夢溪

1992a “文化託命'與中國現代學術傳統”，『中國文化』6.

1992b “社會變革中的文化制衡-對五四文化啓蒙的另一種反思-”，『二十一世紀』1992(4).

劉再復

1993 “歷史角色的變形-中國現代知識分子的自我迷失-”, 林道群·吳讚梅 編, 『悲劇的力量』, (中國知識分子歷程3),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劉再復·林崗

1988 『傳統與中國人』, 香港: 三聯書店.

劉青峰

1991 “二十世紀中國科學主義的兩次興起”, 『二十一世紀』 1991(4).

劉則鳴

1993 『走下聖壇的中國知識分子』, 軍事誼文出版社.

劉澤華 主編

1992 『士人與社會』, 天津: 人民出版社.

劉洪濤

1994 “九三年文化報告: 失衡的文化現象”, 『文匯報』 1994년 1월 17일. (『新華文摘』 1994(3) 所收)

劉烜

1983 『聞一多評傳』, 北京大學出版社.

李德順

1994 “當前道德建設的重大課題”, 『天津社會科學』 1994(5). (『新華文摘』 1995(1) 所收)

李林

1991 “還「問題與主義」之爭的本來面目”, 『二十一世紀』 1991(11).

李樹青

1994 “論知識分子”, 湯學智·楊匡漢 編, 『台港暨海外學界論中國知識分子』, 河南人民出版社.

李澤厚·王德勝

1994 “關於文化現象道德重建的對話”(下), 『東方』 1994(6).

林道群·吳讚梅 編

1993a 『這也是歷史』, (中國知識分子歷程1),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3b 『告別諸神』, (中國知識分子歷程2),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1993c 『悲劇的力量』, (中國知識分子歷程3), 香港: 牛津大學出版社.

林毓生

1991 “‘問題與主義’論辯的歷史意義”，『二十一世紀』1991(12).

林毓生 等

1989 『五四：多元的反思』，홍콩：三聯書店.

張道根

1994 “部分先富的改革效應”，『學術月刊』1994(1) (『新華文摘』1994(4) 所收)

張寶坤

1994 “需要的是大聲疾呼”·“人們反感的是什麼樣的教化?”，“文學：呼喚社會變革相適應的新道德-首都部分學者、理論家研討社會轉型期的文學與道德問題-”，『光明日報』1994년 6월 22일. (『新華文摘』1994(8) 所收)

張承志

1994 “詩人，爾為什麼不憤怒”，“人文精神與文人操守”，『新華文摘』1994(11).

張于

1994, “市場經濟與價值重建”，“社會轉型時期價值觀念和文化筆談”，『中國社會科學』1994(3). (『新華文摘』1994(6) 所收)

張芝聯

1995 “社會科學在中國的進一步發展-『中國社會科學輯刊』出版座談紀要-”，『東方』1995(2).

張馬華

1994 “文人息怒”，“人文精神與文人操守”，『新華文摘』1994(11).

錢穆

1994 “中國知識分子”，湯學智·楊匡漢 編，『台港暨海外學界論中國知識分子』，河南人民出版社.

丁守和

1994 “論文化的繼承，吸收和創新問題”，『炎黃文化研究』1994. (『新華文摘』1994(11) 所收)

鄭也夫

1988 “啓蒙者卑微化的歷史尋綜-兼論知識分子與大眾-”，『走向未來』3(3).

鄭寧

1994 “誰是知識分子?”, 『東方』 1994(4).

趙德昌

1989 『知識分子問題研究』, 山西人民出版社.

趙鵬飛·鄢志耀 主編

1990 『探索與奮鬥-中國知識分子的歷史足跡-』, 中國文史出版社.

朱光亞

1993 “重溫毛澤東關於科技工作的論述”, 『光明日報』 1993년 11월 3일. (『新華文摘』 1994(1) 所收)

周國平

1994 “救世和自救”, “人文精神與文人操守”, 『新華文摘』 1994(11).

周質平

1991 “民主與獨裁的兩難”, 『二十一世紀』 1991(12).

周舵

1993 “我母親的自殺——一個案例的研究”, 林道群·吳讚梅 編, 『這也是歷史』, (中國知識分子歷程1), 홍콩: 牛津大學出版社.

中國文物報

1990 “文物歷史學專家談『河殤』”, 『中國文物報』 1990(3) (1990.1.18), 1990(4) (1990.1.25), 1990(5) (1990.2.8), 1990(13) (1990.4.5).

陳來

1995 “九十年代步履維艱的‘國學研究’”, 『東方』 1995(2).

陳少明

1995 “人文景況的觀察意見”, 『東方』 1995(2).

陣志遠 主編

1993 『中國民主黨派史稿 1928-1988』, 天津: 人民出版社.

陳平原

1993 “當代中國人文學者的命運及其選擇”, 『東方』 1993 창간호.

祝華新

1993 “當代中國文化生態環境透視”, 『東方』 1993년 창간호.

湯學智·楊匡漢 編

1994 『台港暨海外學界論中國知識分子』, 河南人民出版社.

彭明

1993 “養成一代好的學風-紀念范文蘭100周年誕辰-”, 『人民日報』 1993년 10월 25일.

許紀霖

- 1991 “中國自由主義知識分子的參政 1945-1949”, 『二十一世紀』 1991(8).
- 1992a 『精神的煉獄-文化變遷中的中國知識分子-』, 香港: 三聯書店.
- 1992b “中國知識分子從政與從學的抉擇”, 『精神的煉獄-文化變遷中的中國知識分子-』, 香港: 三聯書店.
- 1992c “現代知識分子的‘理想類型’”, 『精神的煉獄-文化變遷中的中國知識分子-』, 香港: 三聯書店.
- 1992d “知識分子的文化使命”, 『精神的煉獄-文化變遷中的中國知識分子-』, 香港: 三聯書店.
- 1992e “陳布雷: “道”與“勢”之間的掙扎“, 『精神的煉獄-文化變遷中的中國知識分子-』, 香港: 三聯書店.
- 1993 “精英文化的自我救拯”, 『二十一世紀』 1993(10).
- 1994a “俗世中的時尚”, 『東方』 1994(4).
- 1994b “也談詩人的憤怒”, “人文精神與文人操守”, 『新華文摘』 1994(11).

胡明

- 1991 “胡適批判的反思”, 『二十一世紀』 1991(12)

黃平

- 1993 “體制規範與話語轉換: 五十年代的知識分子改造”, 『東方』 1993(3)
- 1994 “有目的的行動與未預期之後果-中國知識分子在五十年代的經歷探源-”, 『中國社會科學輯刊』 15

菊池貴晴

- 1987a 『中國第三勢力史論-中國革命における第三勢力の總合的研究-』, 東京.
- 1987b “西南聯合大學と中國民主同盟”, 『中國第三勢力史論-中國革命における第三勢力の總合的研究-』, 東京.
- 1987c “中國革命における第三勢力の成立と展開”, 『中國第三勢力史論-中國革命における第三勢力の總合的研究-』, 東京.

吉田富夫

- 1990 “‘人民’から國民へ-天安門事件の近代史的考察-”, 野村浩一 等 篇, 『民主化運動と中國社會主義』, 東京.

大和田瀧恵

- 1989 “擴大する中國の經濟格差”, 野村浩一 等 編, 『静かな社會變動』, 東京.

辻康吾

- 1990 “『四十年體制』の崩壊と民主化の可能性-轉換點としての天安門事件-”, 野村浩一

等篇, 『民主化運動と中國社會主義』, 東京.

劉賓雁 著, 陳逸雄 譯

1990 『中國の幻想と現實』, 東京.

平野正

1983 『中國民主同盟の研究』, 東京.

Alito, Guy S.

1979 *The Last Confucian: Liang Shu-ming and the Chinese Dilemma of Modern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rieder, Jerom B.

1970 *Hu Shih and the Chinese Renaissance: Liberal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Intellectuals and the State in Modern China: A Narrative history*, New York.

Hsia, Tsi-an

1968 *The Gate of Darkness: Studies on the Leftist literary Movement in Chin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epper, Suzanne

1978 *Civil War in China: The Political Struggle 1945-1949*, California University
Press.

Schneider, Laurence A.

1971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Nationalism and the Quest for
Alternative Tra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he Chinese Intellectuals in Predicament

Sung-kyu Lee

Since Deng Hsiaoping seized the power of the Party, the Chinese government adopted the Reform and Open Policy and re-introduced capitalist market economy. It insists that it is trying to construct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In order to achieve this ultimate goal successful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contribution by the scientists and technocrats, calling for intellectuals to construct a new 'spiritual civilization' to meet the new situation.

The Chinese intellectuals, having traditionally acted as ruling elites, have thought that the matter of moral values and ideology is their proper task. However, their present situation is very different: they are no more regarded as leading elites, their knowledge is despised as a useless thing, and their income belong to the lowest class. Many intellectuals do not hesitate to confess a bitter feeling of embarrassment that they have been fallen into the bottomless pit, and they are very skeptical to their newly assigned task.

Certainly, this situation resulted from the CCP policy oppressive to the intellectuals, especially the policy of liquidating them in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Moreover the Party still insists on its dictatorship not tolerating political dissent. But their destiny was already foreboded in the New Culture Movement of the 1920s and the revolutionary movements of the following decades. The dominant trend in those years was oriented to radical anti-traditionalism, which was obsessed with excessive activism not based on solid scholarship and learning.

The revolutionary intellectuals advocated that the call for salvation of the nation was so urgent that they had no choice but such activism, though not foreseeing how much price they had to pay. But the revolution, which they were so eagerly to support and participate in, forced "corrupt and useless" intellectuals to learn from "innocent and pure" people so that they could become good servant of the people. Following the path of the revolution, they believed they could be reborn as major agents making new history.

The results, however, were almost total destruction of academic disciplines, in particula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nd self-annihilation of the intellectuals, which culminated in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In retrospect of the past tragedy, the Chinese intellectuals have recently warned the danger of excessive concern for politics and radical idealism. Many of them have urged their colleagues to abandon their presumptuous role as the supreme judge in the matter of ethics and moral values. But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most urgent task of the intellectuals in contemporary China is to enhance their academic level up to the point corresponding to the rising status of New China.

이성규,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동양사학과

Tel : 880-6195(O), 334-1146(H)